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응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니버티드 플레이스 내이션과
함께 아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대표전화 : (703)281-9660 koreadaily.com

중앙일보

① The Korea Daily

COPYRIGHT 2024 제 691468호

Thursday, January 15 2026 A

연방요원이 쏜 비살상탄에 남성 실명

‘르네 쿠 사망’ 규탄 시위
부상에도 연행, 치료 지연

연일 불법체류자 단속 요원들의 공권력 남용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국토안보부(DHS) 요원이 발포한 비살상탄에 맞아 20대 남성이 실명하는 피해를 입었다.

13일 샌타에나 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공권력 남용을 비판하는 시위에 참가했던 시민들이 모여, 연방 요원의 발포로 한 20대 남성이 비살상탄에 맞아 왼쪽 눈을 실명했다고 주장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9일 샌타에나 연방청사 앞에서 발생했다. 당시 시위대는 지난 7일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ICE 요원의 폭력으로 르네 니콜 쿠(37)이 사망한 사건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연방청사 경비를 맡은 요원들이 한 시위 참가자를 연행하려 했다. 이에 다른 시위자들이 체포에 나선 요원 3명을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DHS 요원 한 명이 시위대를 향해 비살상탄을 발포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시위대에 섞여 있던 한 21세 남성은 왼쪽 눈에 비살상탄을 맞아 피를 흘렸다. 발포한 요원은 시위대가 물리쳤을 때도 불구하고 피를 흘리는 남성의 재킷 후드를 잡아당긴 채 연행을 시도했으며, 응급 치료도 지연됐다는 것이다. 피해 남성의 가족인 제리 리즈는 LA타임스 인터뷰에서 “조카는 6시

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지만 영구 실명 진단을 받았다”며 “의사는 조카의 눈에서 플라스틱, 유리, 금속 조각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금속 조각은 경동맥에서 불과 7mm 떨어진 곳에 박혀 생명 위협으로 제거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리즈는 또 “조카가 얼굴을 감싼 채 눈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음에도 요원들은 ‘너는 눈을 잃게 될 것’이라며 조롱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DHS를 향한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다.

모독카운티 셰리프 겸 경찰기관 법률 자문인 에드 오바야시는 “모든 훈련 교육과 법적 판례는 사람의 얼굴을 조준한 비살상무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 요원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민 당국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날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ICE 등 이민 당국이 불법 체류

자 단속 과정에서 카운티 정부 소유의 건물 또는 부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ICE 프리 존(ICE-Free Zones)’ 조례안 마련을 위해 카운티 검찰에 조안 작성을 지시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한편 DHS가 ICE 요원의 죄송 사건 경위를 발표한 이후, 현지 경찰국이 상반된 내용을 공개하면서 사건 경위를 정정하는 일도 발생했다. 13일 DHS는 지난달 24일 메릴랜드주 글렌 베니 지역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밴 차량에 타고 있던 불법 체류자 2명이 ICE 요원을 향해 돌진하다 대응 사격을 받아 부상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앤 아룬델 카운티 경찰국은 부상자 중 한 명은 당시 밴에 타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국에 따르면 부상자 중 한 명은 이미 ICE 차량에 수감된 상태였고, 밴을 운전한 사람만 총상을 입었다. 이후 경찰국 발표 직후 DHS는 부상자 한 명이 사건 당시 ICE 차량에 타고 있었다고 정정했다.

김형재 기자

‘위험 인물’
비자 취소 10만 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10만 건이 넘는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는 12일 “취소된 비자에는 학생 비자 약 8000건과 국내 범죄 이력이 있는 전문직 비자 2500건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전체 비자 취소 건수는 2024년(약 4만 건)과 비교해 150% 증가한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정책 전반을 한층 강화해 왔다. 범죄 이력 여부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재점검해 왔으며, 친필레 스타인 관련 활동이나 특정 정치·사회적 사안에 대한 공개적 발언 등도 비자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검토해 왔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신청 단계에서도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소셜미디어 활동에 대한 검증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 심사 절차를 도입하는 등 비자 발급과 유지 전반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강한길 기자

제21회 미주한인의 날 기념축전 성료

미주한인재단 워싱턴
한미동맹 중요성 강조

미주한인재단-워싱턴(회장 로사 박)이 한인 이민 123주년을 기념해 13일 워싱턴DC 소재 연방의회에서 ‘제21회 미주한인의 날’ 기념축전을 열었다.

로사 박 회장은 “세계의 중심지 워싱턴에서 여러분과 함께 미주한인의 날을 축하할 수 있어 기쁘기 한량없다”면서 “연방 의회에서 이민 선조들의 발자취를 알리는 동시에 자라나는 후세들

에게 한인의 정체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힘든 가문에서도 행사를 갖게 됐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기념식에는 영 김 연방 하원의원(공.캘리포니아), 제임스 워킨쇼 연방 하원의원(민.버지니아), 데이브 민 연방 하원의원(민.캘리포니아), 수하스 수브라마니암 연방 하원의원(민.버지니아) 등 정계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축사는 마크 김 전 버지니아 주하원의원에게 리더상을, 백성옥 전 메릴랜드 한인회장에게 공로상을, 재미한인과학자협회 워싱턴지부에 사회봉사상을 수여했다.

영사가 대독해 의미를 보탰다.

기조연설은 마크 김 전 버지니아 주하원의원이 ‘절반에서 전체: 한인들의 이야기와 미국 역사, 그리고 한인사회 현주소’라는 주제로 흥미롭게 이끌어 주목을 받았다.

이날 미주한인재단-워싱턴은 마크 김 전 버지니아 주하원의원에게 리더상을, 백성옥 전 메릴랜드 한인회장에게 공로상을, 재미한인과학자협회 워싱턴지부에 사회봉사상을 수여했다.

또한 청소년 리더십 장학금은 앤리

미주한인의 날 기념축전 참석자들이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스 신, 이사벨 남 학생에게 각각 종서와 함께 전달했다.

식순에 이어 2부 문화행사에서는 디

기원무 춤 공연과 그레이스 강 박사의 해금 연주, 바리톤 제럴드 문의 가곡이 이어져 장내 열기를 뜨겁게 했다.

김성한 기자



WWW.UMNLOAN.COM

신뢰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15개 주 Lender License를 보유하고 뉴저지와 조지아에 Local Office가 있어 다른 주에 투자 또는 이주시에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의 꿈을 이루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Lender Licensed States (VA, MD, DC, NJ, GA, PA, TN, NC, AL, MI, FL, DE, WV, SC, CA)



대표전화:

703-204-0022 | 703-268-3954

VA Fairfax Office
3923 Blenheim Blvd., Unit 62A&B
Fairfax, VA 22030

NJ Cherry Hill

1415 Route 70 E. Suite 502
Cherry Hill, NJ 08034

GA Fort Lee Office
222 Bruce Reynolds Blvd., STE 590
Fort Lee, NJ 07024

Happy New Year
2026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VA Duluth Office
3483 Satellite Blvd. STE 208S
Duluth, GA 300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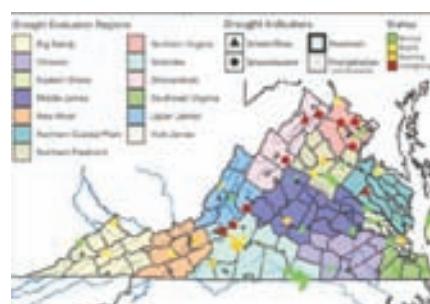
VA 페어팩스 카운티 '가뭄 경보' 발령

두달만에 한단계 격상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 '가뭄 경보'가 발령됐다.

지난해 11월부터 버지니아 북부와 중부 지역에 내려졌던 '가뭄 주의보'가 2개월 만에 '가뭄 경보'로 한 단계 올라갔다.

최근 몇 주 동안 강우량과 강설량이 부족하여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자 버지니아 환경품질부(DEQ)는 13일 페어팩스 카운티를 포함한 북버지니아 지역에 가뭄 경보를 발령한다고 발표 했는데, "가뭄 경보 발령은 심각한 가뭄 사태가 임박했음을 알리기 위한



1월 13일 기준 버지니아주 가뭄 지표 (버지니아 환경품질부 제공)

것"이라고 밝혔다.

DEQ는 주 전역에서 가뭄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카운티는 12개, 도시는 7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심각한 상태라고 전했다.

가뭄 모니터링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북버지니아의 강수량과 지하수 수위는 "비상" 수준에 도달했지만, 하천 유량과 저수지 수위는 정상 수준을 보이고 있다.

DEQ는 "모든 버지니아 주민들은 물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가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정부 정책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2024년 6월 이후 가뭄 주의보가 정기적으로 발령되어 왔지만, 2025년 5월과 6월 비가 많이 내리면서 다소 숨통이 트였는데, 그 이후 다시 가뭄이 지속되어 이번에 가뭄 경보가 발령되게 된 것이다.

김성한 기자



동고메리 카운티, 한인의 날 기념식 개최 한인이 밀집돼 있는 메릴랜드주 동고메리 카운티 정부는 13일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카운티 청사의 한 건물에서 열린 기념식은 의회와 이그제큐티브가 주최했는데, 한주류사회에서 주요 인사 상당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동고메리 카운티 정부는 이 자리에서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 기념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편, 동고메리 카운티는 2012년에 미주 한인의 날(1월 13일)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해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김성한 기자

'과시용 난폭운전' 단속 강화

메릴랜드 주립경찰국과 프린스조지스 카운티 경찰국이 이른바 '과시용 난폭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시용 난폭운전은 도로·주차장 등에서 관중을 모아놓고 엘렉트리티브와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스키드 마크를 남기며 원을 그리는 일명 '도넛'으로 불리는 곡예 운전이나 불법 자동차 경주 등을 벌이며 대중의 시선을 끄는 불법 주행 행위를 뜻한다.

이같은 불법 운전은 주로 시합 형태

로 진행되는데 수사 당국은 이러한 불법 집결이 교통 마비와 안전사고를 유발할 뿐 아니라 현장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총격 등 강력범죄로 번지는 사례도 있어 공공안전 차원에서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두 경찰국은 지난주 관련 총격사건 용의자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메릴랜드는 2024년 법 개정을 통해

의도적으로 급가속, 급감속, 타이어 스

키드마크, 과도한 소음 등 2가지 이상

행위를 수반하는 운전을 과시용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법원 구인장을 발부해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벌금 1천 달러, 최대 60일 구금이 가능하며,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징역 1년형 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인명살상 행위가 벌어졌다면 가중처벌되며, 불법행위를 단순 관람하거나 참여한 경우에도 차량 운전자에 대해 벌점이 부과되거나 운전면허 정지 처분 및 몰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윤미 기자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만 진전

가족·취업이민 계속 제자리

3개월 진전됐다.

다만 1월 문호에서와는 달리, 취업이민 문호 중에서는 3순위를 제외한 나머지 순위 문호는 제자리걸음을 했다.

취업이민 2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4년 4월 1일로 유지됐으며, 2순위 접수가능우선일자 역시 2024년 10월 15일로 동결됐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에 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1년 9월 1일,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1년 12월 1일로 기존과 같은 날짜를 유지했다.

현재 취업이민 중에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 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과 접수가능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 중이다.

김은별 기자

2026년 2월 중 영주권 문호

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가족이민	1 2016년 11월 8일 (2016년 11월 8일)	2017년 9월 1일 (2017년 9월 1일)
	2A 2024년 2월 1일 (2024년 2월 1일)	2026년 1월 22일 (2025년 12월 22일)
	2B 2016년 12월 1일 (2016년 12월 1일)	2017년 3월 15일 (2017년 3월 15일)
	3 2011년 9월 8일 (2011년 9월 8일)	2012년 7월 22일 (2012년 7월 22일)
취업이민	4 2008년 1월 8일 (2008년 1월 8일)	2009년 3월 1일 (2009년 3월 1일)
	1 오픈 (오픈)	오픈 (오픈)
	2 2024년 4월 1일 (2024년 4월 1일)	2024년 10월 15일 (2024년 10월 15일)
	3 2023년 6월 1일 (2023년 4월 22일)	2023년 10월 1일 (2023년 7월 1일)
	4 2021년 9월 1일 (2021년 9월 1일)	2021년 12월 1일 (2021년 12월 1일)
	5 오픈 (오픈)	오픈 (오픈)

괄호 안은 2026년 1월 우선일자, 자료: 국무부



장인규 6.25참전유공자회장, 본보 방문 제26대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위상던지회 새 수장으로 선출된 장인규(90) 회장이 14일 인사 차 본보를 방문했다. 이태하 전 회장, 김정업 이사와 함께 본보를 방문한 장인규 신임 회장은 "앞으로 임기 동안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유공자회를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한인사회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장신임 회장은 지난 10일 애나데일 소재 한강식당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추대와 인준 절차를 거쳐 새 회장으로 정식 선출됐다. 이날 이사회에는 17명 중 12명이 참석했다. 사진은 좌로부터 이태하 전 회장, 장인규 신임회장, 김정업 이사. 김성한 기자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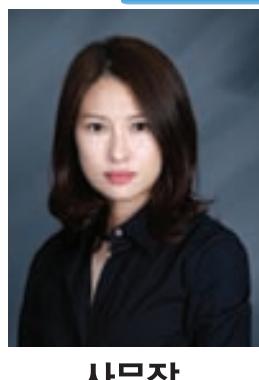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 Retired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굽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히스패닉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 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 청구와 교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림.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571-564-3282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한인 학생, 유명 야구 대회 최우수 타자 등극

팍스중 재학 13세 애런 김
홈런 55개·타율 0.575
주최 측 “게임 같은 성적”

오렌지카운티의 한인 야구 유망주가 엘리트 아마추어 선수들의 대회로 유명한 퍼펙트게임(PG) 토너먼트에서 ‘2025 최우수 타자상’을 수상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애런 김(13·팍스 중) 군이다. 김 군은 PG 측이 지난해 토너먼트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전국의 2031년 고교 졸업 예정 우수 타자 25명으로 구성한 ‘올 아메리칸 퍼스트 팀’에 지난 5일 선정된 것은 물론 그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공격력을 발휘한 선수에게 주는 최우수 타자상까지 받았다.

세계 최대 규모 아마추어 야구 스카우팅 기관으로 알려진 PG 측은 김 군을 소개하며 “지난해 비디오 게임에 나온 법한 성적을 거뒀다. 총 212개의 안타 중 절반 이상이 장타였으며, 홈런 55개, 타점 245점을 기록했다. 토너먼트 내내 호성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지난 시즌 ‘ZT 내셔널 프로스펙츠’ 와 다른 2개 팀에 소속돼 총 162경기를 치른 김 군은 369타수 212안타로 타율



퍼펙트게임이 ‘2025 최우수 타자’로 선정한 애런 김군.

5할 7푼 5리를 기록했다. 홈런 순위에서 2위보다 20개를 더 친 장타자임에도 출루율(OBP)이 6할 2푼 6리에 달했다. 장타율은 1.27이며,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쳐 타격 생산력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OPS도 1.9를 기록했다. 대부분의 리그에서 OPS 1.0 이상이면 리그 최상위권 타자로 간주하는 점에서 김 군의 타격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김 군의 아버지 앤드루 김 세무회계 법인 송현 대표는 “PG 토너먼트에서 한인이 최우수 타자상을 받은 건 애런이 처음일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 군은 전국 각지 엘리트 선수들로 구성된 팀들의 토너먼트에서 최우수 타자상을 받아 야구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학 야구팀과 메이저리그 구단은 PG의 방대한 선수 데이터베이스를 선수스카우트에 활용한다.

김 군은 투수로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지난 2024년 6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미 야구연맹이 개최한 ‘11세 이하 퓨쳐스 인비테이셔널 대회’에선 두 차례 등판하며 ZT 내셔널 프로스펙츠의 준우승을 견인했다.

김 군은 키 5피트 11인치, 체중 170파운드의 당당한 체구를 지녔다. 아직 어린 나이라 앞으로 신체적으로 더 성장할 여지가 있다.

김 대표는 “코치들이 꼽는 애런의 장점은 타격 시 중심이동과 타구에 힘을 실어 멀리 보내는 기술이 좋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어바인에 사는 김 군은 지난해 애너하임의 ZT 야구 아카데미를 다니다 풀러턴의 팍스중학교로 전학했다. 김 대표는 애런이 학업과 야구를 모두 중실히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에 전념하고 있다. 김 군은 전 메이저리거인 강정호 킹카 베이스볼 아카데미 대표의 지도를 받은 이후 타격이 좋아졌다고 밝혔다. 또 “고등학교를 마치고 곧바로 메이저리그 구단에 입단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김 군이 가장 좋아하는 팀은 LA 다저스이며,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다저스의 1루수 프레디 프리먼이다.

임상환 기자

프레드 정 풀러턴 시장
OC교통국 부의장 선출

프레드 정(사진) 풀러턴 시장이 오렌지카운티 교통국(OCTA) 부의장에 선출됐다.



정 시장은 지난 12일 OCTA 회의에서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부의장이 됐다. 풀러턴 시 측은 한인이 OCTA 부의장을 맡은 사례는 정 시장이 최초라고 밝혔다. OCTA는 카운티 내 34개 도시, 340만 명 주민을 위한 버스, 메트로링크, OC액세스 등 대중교통과 프리웨이, 도로 운영 서비스 등을 담당한다.

정 부의장은 교통 인프라 관련 모든 사업과 계약 승인을 포함한 지역 내 교통 서비스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중책을 맡았다.

지난 2022년 5월부터 OCTA 이사로 활동한 정 부의장은 지난해 초 OCTA 산하 교통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데 이어 올해 중책을 맡게 됐다.

정 부의장은 “뉴욕, LA에 이은 전국 3위 규모 교통국을 이끌게 돼 영광이다.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자부심을 갖고 한인사회가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자원과 자금을 제공하겠다”고 말 했다.



이민 123주년 기념 국기 게양식 13일 LA한인회관에서 미주한인의 날 기념 국기 게양식이 열렸다. 미주한인의 날은 1903년 1월 13일 한인 102명이 하와이에 첫발을 디딘 것을 기념해 연방의회가 1월 13일로 지정한 기념일이다.

김상진 기자

렌트비 15년 만에 처음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평균 0.2% 하락
하반기 때 낙폭이 더 커
신규주택 공급 증가 영향

지난해 샌디에이고 지역의 평균 렌트비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연초보다

낮은 수준에서 한 해를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조사 업체인 코스타 그룹(CoStar Group)이 최근 발표한 로컬 임대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말 샌디에이고 지역의 평균 렌트비는 연초에 비해 0.2%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특히 하반기에는 1% 이상 떨어졌다. 2025년 말 현재 지역의 평균 월 렌트비는 2522달러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하락폭 자체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 지속된 렌트비 상승세가 꺾였다는 점에서 의

미가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세입자들의 협상력이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코스타 그룹의 시장 분석 책임자 조시 올은 렌트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신규주택의 공급 증가를 꼽았다. 그는 “2025년에만 약 6100세대의 신규주택이 공급돼 2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공급이 수요를 약 40% 웃돌았다”

고 설명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부담과 주거 공간을 줄이려는 움직임, 그리고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공실률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임대인들이 안정적으로 세입자를 유지하거나 신규 세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혜택을 제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당분간 렌트 시장의 주도권이 세입자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영민 기자

세라젬

가족의 건강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 세라젬

CERAGEM

목부터 어깨, 허리, 골반까지 몸의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누워보세요. 이유를 압니다. 지금 매장에서 직접 체험해 보세요.

대한민국 식약처
미국 FDA, 유럽 CE
인증받은
의료기기 기술력

척추는 신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마스터 V 컬렉션” 체험해 보세요.



- 척추 길이, 굴곡도, 하중 인식으로 사용자 체형측정 기능 (특허)
- 내부 발열 도자 사용자별 척추리인을 따라 업 다운 밀착 마사지 효과 제공 (특허)
- 복부 온열 도자 (V5, V6, V7, V9), 에어셀 다리 마사지 (V6, V7, V9)-힐액 순환 개선
- 목, 어깨, 등, 허리, 골반에 집중 온열 (최고 149°F) 마사지를 제공하여 척추 통증과 근육통 완화
- 마스터 V9 시그니처 – 이지 리클라이닝, 5세대 세라코어 엔진, 베드 모드 & 체어 모드



모델 M6



모델 M10



우아함을 위한 디자인,
섬세하고 정교한 휴식 기술
“파우제 M 컬렉션”
체험해 보세요.



모델 M10

- 마사지 효과를 높이는 릴랙스 온열 케어로 따뜻하고 편안한 휴식
- 복부 온열 진동 도자 (모델 M4, M6), 에어셀 다리 마사지 (M6)
- 휴식의 몰입감을 높이는 블루투스 스피커
- 지압, 주무름, 두드림, 복합으로 다채로운 마사지 모드 선택
- 전신을 빙틈없이 풀어주는 5단계 전신 에어 포켓 마사지 (M10 모델)
- 직가열 온열 마사지 볼 (최고 149°F)로 효과 극대화 (특허 M6, M10 모델)
- 척추 라인 스캔으로 척추 길이와 굴곡도 측정하여 체형에 맞춘 최적의 마사지 (M6, M10)

세라젬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K-마켓 안에 위치)

무료 체험 가능
무이자 할부 가능

노동부 장관 한인 비서실장 돌연 직무 배제

차베스-데레마 장관 출장 비위
한지훈 실장, 조작 목인 등 이유
감찰실 “위법 행위 전제아니다”

로리 차베스-데레마 연방 노동부 장관의 최측근인 한인 비서실장이 장관의 출장 기록 조작 및 부적절한 행위 등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됐다. 이번 조치는 노동부 감찰관실(OIG)이 차베스-데레마 장관의 출장 기록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뉴욕포스트는 한지훈(Jihun Han) 노동부 장관 비서실장과 레베카 라이

트 부비서실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뒤 행정 휴직 처리됐다고 지난 12일 보도했다. 한 비서실장은 지난해 3월 임명 당시 연방 정부 내 고위직 진출로 한인 사회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다. (본지 2025년 3월 17일자 A-1면)

감찰관실 측은 이번 조치가 직무 배제 대상 인물들이 조직 운영이나 인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이며, 휴직 처리 자체가 위법 여부를 전제로 한 판단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두 핵심 참모의 직무 배제 기간 동안 누가 장관실 운영을 맡게 될지와 금여 지급 여부 등은 불분명한 상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노동부 감찰관실에 접수된 제보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는 차베스-데레마 장관이 개인 일정이나 가족 방문을 출장으로 조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 비서실장과 라이트 부비서실장이 일정과 행사 등을 기획했다는 주장 등 포함됐다는 것이다.

문건에는 장관이 고향인 오리건주, 자택이 있는 애리조나와 딸이 거주하는 미시간주, 그리고 라스베이거스 등을 반복적으로 방문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장관이 워싱턴DC 외 지역으로 떠난 공식 출장 50여 차례 가운데 최소 10차례가 사적

방문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밖에 장관이 2025년 한 해 동안 라스베이거스를 최소 네 차례 방문했다는 기록도 담겼다.

출장 의혹 외에도 제보 문건에는 장관이 부하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근무 시간 중 음주를 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한 비서실장은 오리건주 출신으로, 차베스-데레마 장관이 연방 하원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함께 일해온 핵심 참모다. 그는 지난해 한인으로는 이례적으로 연방 노동부 장관 비서실장에 임명돼 장관실 운영과 정책 조율을 총괄해 왔다.

강한길 기자

이에 대해 백악관과 노동부는 제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노동부 측은 대변인을 통해 “차베스-데레마 장관은 모든 윤리 규정과 부처 정책을 준수해 왔다”고 밝혔다. 장관의 남편도 성명을 내고 의혹을 부인했으며, 장관 측은 제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리건주에서 성장한 한 비서실장은 오리건 부동산 중개인 협회와 지역 정치 단체 등에서 활동하며 정치 경력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차베스-데레마 장관의 연방 하원의원 시절 수석 보좌관으로도 일했다.

리얼ID 없으면 국내선 45불 수수료

리얼ID 없이 공항을 찾는 이용객은 보안 검색 시 45달러를 내야 하는 정책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당국은 정책 시행 일이 다가옴에 따라 공항 이용객들에게 리얼ID 신청을 권고하고 있다.

연방교통안전국(TSA)은 공지를 통해 오는 2월 1일부터 국내선 이용 시 리얼ID 등 연방정부가 인증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공항 이용객은 45달러의 수수료를 낸 뒤 보안 검색대에서 별도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증에는 ►리얼ID ►여권 ►여권 카드 ►국토안보부 여행자 카드(글로벌엔트리·FAST·NEXUS) ►영주권 카드 ►국경 출입 카드 ►노동허가증(I-766) 등이 포함된다.

연방정부 인증 신분증이 없을 경우 45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약 30분 가량 소요되는 별도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TSA 측은 45달러 수수료를 낼 경우 별도 신원 확인의 인정 유효기간은 10일이라고 설명했다. 연방정부 인증 신분증이 없는 이용객은 웹사이트(TSA).

gov/ConfirmID)에 접속해 수수료를 사전에 납부하고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가주민은 웹사이트(REALID.dmv.ca.gov)에 접속해 계정을 만든 뒤 리얼ID 신청과 구비 서류 업로드를 진행하면 된다. 이후 방문 예약을 통해 사무소를 찾아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소셜시큐리티 카드 ►거주지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2종(유털리티 고지서·은행 명세서·차량 등록증·휴대전화 고지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어의 세계 언어 채택을 목표로 한국어 알리기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출간한 ‘에픽 코리안(EPIC KOREAN)’ 교재는 LA통합교육구(LAUSD) 공식 한국어 교재로 채택됐으며, 캐나다와 유럽 등에서도 표준 한국어 교과서로 인기를 얻고 있다.

재단은 2026년 제16기 이사장에서 모니카 류 이사장의 후임으로 유니스 이신임 이사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류 전 이사장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이사장직을 맡아 재단을 이끌어 왔다.

현재 재단은 16명의 이사진을 중심

김형재 기자

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어의 세계 언어 채택을 목표로 한국어 알리기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출간한 ‘에픽 코리안(EPIC KOREAN)’ 교재는 LA통합교

육구(LAUSD) 공식 한국어 교재로 채

택됐으며, 캐나다와 유럽 등에서도 표

준 한국어 교과서로 인기를 얻고 있다.

재단은 한국어 교사연수와 예비교

사연수, 행정가 대상 한국 연수 등 8개 주요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어의 세계 언어 채택을 목표로 한국어 알리기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출간한 ‘에픽 코리안(EPIC KOREAN)’ 교재는 LA통합교

육구(LAUSD) 공식 한국어 교재로 채

택됐으며, 캐나다와 유럽 등에서도 표

준 한국어 교과서로 인기를 얻고 있다.

재단은 한국어 교사연수와 예비교

사연수, 행정가 대상 한국 연수 등 8개 주요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어의 세계 언어 채택을 목표로 한국어 알리기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출간한 ‘에픽 코리안(EPIC KOREAN)’ 교재는 LA통합교

육구(LAUSD) 공식 한국어 교재로 채

택됐으며, 캐나다와 유럽 등에서도 표

준 한국어 교과서로 인기를 얻고 있다.

재단은 한국어 교사연수와 예비교

사연수, 행정가 대상 한국 연수 등 8개 주요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어의 세계 언어 채택을 목표로 한국어 알리기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출간한 ‘에픽 코리안(EPIC KOREAN)’ 교재는 LA통합교

육구(LAUSD) 공식 한국어 교재로 채

택됐으며, 캐나다와 유럽 등에서도 표

준 한국어 교과서로 인기를 얻고 있다.

재단은 한국어 교사연수와 예비교

사연수, 행정가 대상 한국 연수 등 8개 주요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어의 세계 언어 채택을 목표로 한국어 알리기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출간한 ‘에픽 코리안(EPIC KOREAN)’ 교재는 LA통합교

육구(LAUSD) 공식 한국어 교재로 채

택됐으며, 캐나다와 유럽 등에서도 표

준 한국어 교과서로 인기를 얻고 있다.

재단은 한국어 교사연수와 예비교

사연수, 행정가 대상 한국 연수 등 8개 주요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어의 세계 언어 채택을 목표로 한국어 알리기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출간한 ‘에픽 코리안(EPIC KOREAN)’ 교재는 LA통합교

육구(LAUSD) 공식 한국어 교재로 채

택됐으며, 캐나다와 유럽 등에서도 표

준 한국어 교과서로 인기를 얻고 있다.

재단은 한국어 교사연수와 예비교

사연수, 행정가 대상 한국 연수 등 8개 주요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어의 세계 언어 채택을 목표로 한국어 알리기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출간한 ‘에픽 코리안(EPIC KOREAN)’ 교재는 LA통합교

육구(LAUSD) 공식 한국어 교재로 채

택됐으며, 캐나다와 유럽 등에서도 표

준 한국어 교과서로 인기를 얻고 있다.

재단은 한국어 교사연수와 예비교

사연수, 행정가 대상 한국 연수 등 8개 주요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어의 세계 언어 채택을 목표로 한국어 알리기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출간한 ‘에픽 코리안(EPIC KOREAN)’ 교재는 LA통합교

육구(LAUSD) 공식 한국어 교재로 채

택됐으며, 캐나다와 유럽 등에서도 표

준 한국어 교과서로 인기를 얻고 있다.

재단은 한국어 교사연수와 예비교

사연수, 행정가 대상 한국 연수 등 8개 주요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어의 세계 언어 채택을 목표로 한국어 알리기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출간한 ‘에픽 코리안(EPIC KOREAN)’ 교재는 LA통합교

육구(LAUSD) 공식 한국어 교재로 채

택됐으며, 캐나다와 유럽 등에서도 표

준 한국어 교과서로 인기를 얻고 있다.

재단은 한국어 교사연수와 예비교

사연수, 행정가 대상 한국 연수 등 8개 주요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어의 세계 언어 채택을 목표로 한국어 알리기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출간한 ‘에픽 코리안(EPIC KOREAN)’ 교재는 LA통합교

육구(LAUSD) 공식 한국어 교재로 채

택됐으며, 캐나다와 유럽 등에서도 표

준 한국어 교과서로 인기를 얻고 있다.

재단은 한국어 교사연수와 예비교

사연수, 행정가 대상 한국 연수 등 8개 주요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어의 세계 언어 채택을 목표로 한국어 알리기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출간한 ‘에픽 코리안(EPIC KOREAN)’ 교재는 LA통합교

육구(LAUSD) 공식 한국어 교재로 채

택됐으며, 캐나다와 유럽 등에서도 표

준 한국어 교과서로 인기를 얻고 있다.

재단은 한국어 교사연수와 예비교

사연수, 행정가 대상 한국 연수 등 8개 주요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어의 세계 언어 채택을 목표로 한국어 알리기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출간한 ‘에픽 코리안(EPIC KOREAN)’ 교재는 LA통합교

육구(LAUSD) 공식 한국어 교재로 채

트럼프, 시위대 공개 지지 “기관 점령하라, 도움 손길 간다”

〈이란〉



“트럼프 고마워”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이란 정부 규탄 시위대 옆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레자 팔레비 이란 왕세자 사진에 “고마워요 트럼프” 문구 등이 담긴 포스터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하메네이는 악마” 13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이란 반정부 시위에서 시민들이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악마로 묘사한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란에선 이날까지 최소 300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이란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군사적 개입 가능성 강하게 시사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BS방송 인터뷰에서 “최종 목표는 승리다. 나는 이기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압송 작전, 2020년 1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정예 쿠드스 군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공습 작전 등을 언급하면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지도부 전복을 포함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미 정부 수뇌부는 백악관에서 이란 대응 방안을 시나리오별로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참했지만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 최고위 각료가 참여했으며, 군사적 타격 방안과 함께 사이버전, 고강도 경제 제재 등이 논의됐다고 한다. 이란 정권 핵심 인사나

시위 진압에 관여한 IRGC 등에 대한 정밀 타격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군사행동은 언제든 가능한 상황이다. 중동·페르시아만 일대에는 미군 유도미사일 구축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잠수함 전력이 전개돼 있다. 다만 워싱턴포스트(WP)는 “고위 각료들은 군사적 개입에 회의적”이라며 “역 효과를 부르거나 정밀 타격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가디언은 “현재 중동에 미 항공母함이 배치돼 있지 않고, 이란의 반격 능력도

마두로 체포·이란 핵시설 공습 언급 “최종 목표는 승리” 군사 개입 시사 연일 강경 진압, 1만2000명 사망설

머스크, 이란에 스타팅크 무료 개방

중국은 미국의 이란 개입에 관망

무시할 수 없어 선택지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이란 정부와의 회담 취소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시위대에 대한 무분별한 학살을 멈출 때까지 모든 회의를 취소하겠다”며 “시위대 교수형 시 매우 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란 시위대

를 ‘애국자’로 칭하며 “도움의 손길이 가고 있다. 시위를 계속하라. 정부 기관을 점령하라”고 독려했다. 이런 가운데 중동특사 스티브 워트코프가 반정부 시위대의 구심점으로 떠오른 과거 이란 왕세자 레자 팔레비와 회동하고 카타르 알우데이드 미군기지에 일부 철수권고가 전달되는 등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시위는 갑자기 거세지고 있다. NYT는 이란 보건부를 인용해 “최소 3000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지만, 반정부 매체 이란인터넷서널은 “이란 현대사에서 가장 대규모 학살이 자행돼 최소 1만2000명이 죽었다”고 알렸다. 이란 당국은 무자비한 사살 작전을 벌이는 중이다. NYT는 이란군이 자동소총과 육상에 배치한 저격수를 통해 시위대를 조준 사격해, 머리와 가슴 등 급소를

맞은 총상 환자가 테헤란 병원에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인터넷 차단에 이어 인공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도 무력화하고 있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스타링크를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코너에 몰린 이란 정부는 경제적 협력 관계인 중국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으나 중국은 관망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은 지지의 신호를 거의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권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시위대가 더 오래 거리 투쟁을 벌이고 군부 세력 등이 이탈해야 가능할 것”(로이터)이란 분석이다.

김형구 기자, 이승호·하수영 기자

미 우선주의 1년…EU 달라졌다 “미국은 적대국” 20% “동맹” 16%

EU 싱크탱크, 세계 21개국 조사 “중국 영향력 커질 것” 50% 넘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국을 동맹국으로 보는 비율이 1년 전에 비해 떨어지는 등 거리감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다수 국가는 향후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

통령의 등장이 전통적 동맹국들을 밀어내고 역설적으로 중국의 부상을 주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유럽연합(EU)의 외교 싱크탱크 유럽외교협회(ECFR)가 지난해 11월 한국·미국·중국·인도·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비(非)유럽 6개국과 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우크라이나 등 유럽 15개국 등 총 21개국 2만59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ECFR은 결과 보고서를 조사 대상 국의 대표적 언론 매체와 사전 공유했

으며, 한국은 중앙일보에만 독점 공급했다. ECFR은 주요 국제 이슈를 놓고 연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국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으로 보는 비율은 1년 전에 비해 영국(37%→25%), EU 10개국(21%→16%), 우크라이나(27%→18%), 중국(15%→10%) 등에서 상당 폭 하락했다. EU의 경우 오히려 미국을 적대국 내지 경쟁국으로 본다는 비율이

20%로 나타나 동맹국으로 본다는 비율(16%)보다 높았다. 이는 미국이 국가보전략(USS)에서 ‘유럽 문명 쇠퇴’를 거론한 데 더해 방위비 인상 압박, 그린란드 병합 악용 등이 누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 미국을 동맹으로 인식한다는 비율이 1년 전 40%에서 41%로 소폭 늘었다. 이번 조사에서 두 드러진 대목은 대부분 국가가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며 점점 더 많은 국가가 중국을 동맹국이나 필수적 파트너로 인

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10년간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더욱 커질 거라고 본다는 응답률은 한국(52%)을 비롯해 남아공(83%), 브라질(72%), 러시아(57%), 스위스(57%), 미국(54%), EU 10개국(53%) 등 조사 대상국 모두 50%를 넘어서졌다.

중국을 동맹국 또는 필수 파트너로 본다는 인식 역시 남아공(각각 37%·48%), 러시아(32%·54%), 브라질(27%·46%) 등 대부분 높았다. 반면에 중국을 적대국 또는 경쟁국으로 본다는 비율은 한국(각각 24%·27%), 우크라이나(33%·2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김형구 기자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고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실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태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mkim@prosperlawpllc.com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고력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고력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F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산부/신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려,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라밀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 / 챔플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40 Years Celebrating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JAN. 15TH - JAN. 22ND, 2026



HAIO Yuza Tea with Honey & Ginger Tea with Honey Bundle

해오름 유자차 + 생강차 번들

1 YUZA + 1 GINGER (4.4 LB/BOX)



창립 40주년
실속기획세트

LIMIT 2

~~Reg. \$14.99~~

\$9.99



**CHEFLINE
4-Hole Egg Fry Pan**

**셰프라인
4구 에그 후라이팬**

~~Reg. \$29.99~~

\$9.99



LIMIT 4

VIRGINIA

FAIRFAX
ANNANDALE
CENTREVILLE
FALLS CHURCH
MANASSAS
BURKE
HERNDON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CATONSVILLE
GAITHERSBURG
WHEATON
FREDERICK
ELLIOTT CITY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3301 NORTH RIDGE RD., ELLICOTT CITY, MD 21043

법정 간 특검보에 온 조은석 문자 '윤석열 사형'

(내란 특별검사)

윤 내란 우두머리 구형 막전막후

지난 9일 오전 9시2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 구형일이었다.

논고문은 박여수 특검보가 읽기로 했다. 조은석 특검은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자리를 지켰다. 내란죄의 법정 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사실상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 정해 야 한다.

재판 시작 직전까지도 박 특검보는 무엇을 구형할지 지시받지 못했다. 논고문도 사형과 무기징역형 두 버전으로 만들었다. 박 특검보가 검사석에 앉자, 문자가 왔다. “윤석열 사형.” 조 특검의 문자였다.

피고인들의 초유의 ‘법정 필리버스터’로 한 차례 늦춰진 특검 구형이 지난 13일 끝났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417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 수뇌부에서는 무기징역 구형 의견이 더 많았다. 13일 사형을 최종 구형할 때 까지의 전말을 중앙일보가 재구성했다.

8일 특검 사무실에서 지휘부 회의가 열렸다. 특검보 등 참석자들은 차례로 의견을 개진했다. 조 특검을 제외하고 참석자 14명은 사형 4명, 무기징역 10명으로 갈렸다. 1996년 사형이 구형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비교해 민간인 사망자가 없고, 사형 역시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무기징역형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은석, 재판 전까지 구형량 말 안해
공판 시작후 특검보에 '윤 사형' 문자
특검팀 회의선 '사형 4, 무기징역 10'

조, 처음엔 "전두환·노태우 준해 처벌"
구형 직전 "더 엄히 단죄" 표현 강화

내란 1심 선고, 내달 19일 오후 3시

많았다. 조 특검은 내내 침묵했다. 그는 자택으로 훌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튿 날 재판이 시작되자 '사형 구형' 결심을 박 특검보에게 알렸다.

다만 9일에는 특검이 구형을 못했다.

변호인 측의 재판 지연성 변론 때문이었다. 새로 결심 기일을 잡고 나흘간의 여유가 생기자 특검팀은 수정을 거듭하며 논고문을 가다듬었다.

논고문은 A4 25매 분량이었다. 특검팀 전체의 합작품이다. 역사 경험에 비춰볼 때 민주주의가 극단적인 정치 세력에 의해 파괴될 수 있고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 항쟁 등의 희생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부분은 논고문을 낭독한 박여수 특검보가 집필했다.

논고문 서두에 국가의 안전과 국민 생존,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를 '반국가활동'으로

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제1조를 인용 한 건 조 특검의 아이디어다. 이를 통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반국가 세력”을 거론했던 윤 전 대통령의 행태 자체가 “반국가활동 성격”이라고 규정 할 수 있었다.

민간인 사망자가 없었어도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취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다”

고 강조하는 데도 조 특검이 공을 들였다. ‘현정 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내란·외환죄를 공소시효 적용에 서 배제한 건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을

조은석

대한민국 기자

경찰, 김병기 압수수색 했지만…금고 못찾고 아이폰은 잡겨

경찰이 공천현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의혹이 불거진 지 상당 시일이 흘러 뒤늦게 압수수색이 이뤄져 주요 증거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 이 제기된다. 최근 강선우 의원, 김경시 의원 사건에서 경찰이 보인 늑장수사와 유사한 양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관계자 조사를 이어 나갈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김 의원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롯해 김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의원 부의장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 차남의 대

방동 아파트에도 수사관을 보냈다.

경찰은 앞서 김 의원의 전 보좌진으로부터 김 의원 부부의 귀중품이 보관된 개인금고가 차남 자택에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영장에 개인금고를 적시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차남 자택을 비롯해 다른 5곳에서도 금고가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미 압수수색 전 개인금고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금고의 행방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선 금고를 찾는다 해도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의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아이폰을 제출했으나 휴대전화는 잡겨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폰은 당시자가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상 포렌식이 불가능한 만큼 경찰은 김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압수수색은 오전 7시 55분께 시작돼 7시간여 만인 오후 3시 9분께 종료됐다. 김 의원 자택과 동작구의회에서는 3시간 30분 동안,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은 4시간 동안, 김 의원 의원회관 사무실은 6시간 50분 동안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와 이 부의장이 포함됐다.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시됐는데, 이날 강제수사는 김 의원

을 둘러싼 여러 의혹 중 공천현금 수수

의혹에 집중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로 인해 김 의원 차남의 '승실 대 특혜 편입' 의혹에 연루된 이 부의장의 사무실 PC에서 송실태 입학 컨설팅 관련 자료가 발견됐으나 경찰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여기에는 당시 이 부의장이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은 2023년 말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과 전 동작구의원 등이 이러한 의혹 사실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한편 작업이 일단락되는 대로 김 의원을 소환해 본격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김 의원과 관련해 ▲ 차남 송실태 편입 개입 ▲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및 수사 무마 ▲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의전 요구 ▲ 쿠광 대표와의 고가 식사 ▲ 장남 국가정보원 채용 개입 ▲ 장남 국정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등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엔 김 의원의 비리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전직 보좌진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한 보좌관은 조사실에 들어서며 "(김 의원이) 받은 범죄 혐의 대부분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1. 센터빌 벽돌 타운	SOLD	\$589,000
	방3, 흐2.5, 치고1, Hmart 인근, 29/Braddock/28/66	
2. 애쉬번 타운		\$660,000
	방 4, 흐 3.5, 치고2, 최고 학군, RT267/7, 텔러스 공항, 전부 리모델링, 새집 깊음	
3. 맥클린 콘도		\$389,000
	방2, 흐2, 1,050sqft, Mclean High, RT 495/66/267/7, Metro, Tysons Galleria 옆	

4. 스텔링 타운	SOLD	\$645,000
	2014년, 방3, 흐2.5, 치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5. 게인스빌 골프 싱글	SOLD	\$1,060,000
	게인스빌 레이크 매나사스 Stonewall Golf Club 내 렉서리 싱글	
6. 빌더 새집 구매 확실히 도와드립니다	Sold	
	1. Haymarket 55+ Villa \$670,000 방3, 흐3.5 치고2 2. 매니시스 2025 새집 \$670,000 방4, 흐3.5, 2400sqft, 치고2 3. Bristow 55+ single \$750,000 방4, 흐3.5 치고2	

7. 우드브리지 싱글	SOLD	\$649,000
	1997년, 방4, 흐3.5 치고1, 뒷술, 최고 학군, 전부 리모델링 포로액을 RT95, RT1, RT234, 디씨풀 그린리	
8. 도미니언 빌리 컨트리 클럽, 헤이 마켓 싱글	\$1,699,000	
	1에이커 숲속, 6,700sqft, 방5, 흐5.5 치고3, 선룸,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욕실, 드레스룸, 인로우 스위트, 미니어처, 게임룸, 바포함, 최신 HVAC, 경수 시스템	
9. 알디 싱글	\$869,000	
	2004년, 방4, 흐2.5, 치고2, 전체마루, 굿컨디션, New Trex deck, New paint, New roof, John Champe High School	

황계실 571-239-6054

고객만족 18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건물·오피스·창고·상가



부동산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크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 VA, MD, DC 면허 소지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같이, 코골이, 머리흔드는 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정성웅 **보험**



정성웅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료가 갑자기 확 올랐나요?

그런데도 다른 보험을
알아 보시기를 주저하고 계신가요?



지금
전화주세요!!

알려 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시면 영어안내 목소리가
나오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때 잠시 기다려 주시면,
저희 직원과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항상 전화 주셔서 감사 드리며, 더욱 친절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운전기록과 상황에 맞춰 딱 좋은 보험을 찾아 드리는



정성웅 보험

T. 703.825.2945 Fax. 703.532.4750
14641 Lee Hwy., Unit 108, Centreville, VA 20121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체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

“검찰이 수사보강 지시 내려… 시간 벌어준 하나님 감사”

이혜훈 비망록, 당시 무슨 일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경찰 내사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 무마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기록이 확인됐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해당 사건을 내사 중이던 경찰의 이 후보자 입건(정식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을 세 차례 막았다.

14일 중앙일보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비망록식 기록에는 “변호사가 검찰에 들어갔다 오더니 내일 입건지휘 내릴 듯. 방법 없다. 입건지휘 내리면 그때 대응 방안 강구 하자” “채동욱 총장께 전화, 수임해야 일할 수 있다”(2017년 9월 19일)는 내용이 담겼다. 다음 날인 9월 20일자에는 “채변이 윤장과 통화했다 함”이라는 문구가 있다. 맥락상 채변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윤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비망록은 이 후보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당시 바른정당 국회의원이자 대표였던 이 후보자가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썼다는 의혹을 내사 중이었다. 이 후보자는 2015~2017년 기념사업회 회장을 지냈는데,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서울의 한 상가연합회가 기념사업회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그리고 이 후보자의 전직 보좌관 김모씨가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해당 기부금 5000만원 중 1600만원을 월급 등으로 받아 갔는데, 이것이 이 후보자의 정치자금으로 흘러갔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다. 이 사건의 수사 지휘를 서울중앙지검장이 담당했다.

당시 경찰은 기부금을 받도록 주도한 보좌관 2명과 돈을 건네준 상가연합회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이혜훈 의원 종선을 돋기 위해 기부금을 냈다’는 상가연합회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해 이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 후보자를 입건조차 하지 못했다. 검찰이 2017년 2월과 8

비망록에 적힌 이혜훈 입건 관련 상황

비망록	2017년 9월 18일	김정훈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기자간담회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이혜훈 입건 신청”
19일		“채동욱 총장께 전화, 할 수 없이 수임 싸인(7천/성공보수 5천/5천)”
20일		“채변이 윤장과 통화했다 함”
21일		“A변호사가 18:34에 연락 옴. 검찰 내일 지휘 내린다. 입건 허락은 아니고 수사보강 지시 내린다. 시간 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2017년 불법 정치자금 의혹
윤석열 지검장 시절 서울중앙지검
경찰의 수사착수 요구 3번 다 막아

채동욱, 댓글수사팀장에 윤발탁 인연
채 “법인서 수임, 윤에 전화 안 해”

이 “채동욱 변호사로 선임한 적 없어”



2006년 ‘론스타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채동욱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과 윤석열 검사(왼쪽). 강정현 기자

입건 여부를 결정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엔 검찰이 입건하지 못하게 지휘하면 따르는 게 통상적이었다. 경찰이 아무리 수사 의지가 있어도 검찰이 마음먹으면 있는 사건을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소위 ‘이혜훈 비망록’에는 입건이 막힌 과정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이 적혀 있다. 날짜별 메모 형식으로 기록돼 있는데, 대부분이 이 후보자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구체적 내용이다.

2017년 9월 19일 기록에는 “변호사가 검찰에 들어갔다 오더니 내일 입건지휘 내릴 듯. 방법 없다. 입건지휘 내리면 그때 대응 방안 강구하자→이런 소리 할 거면 비싼 변호사비 왜 받나?”라고 쓰여 있다. 또 “채동욱 총장께 전화, 수임해야 일할 수 있다. 할 수 없이 수임 싸인(7천/성공보수 5천/5천)”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비망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후보자가 입건될 기미가 보이자 이를 막기 위해 채 전 총장을 급하게 변호사로 수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실제 전날 김정훈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 “이번 주 안에 이혜훈 의원의 입건지휘를 검찰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 전 총장을 변호사로 수임했다고 쓴 다음 날인 9월 20일 비망록에는 “A변호사가 공인부에 기서 하명수사, 초고강도 장기 수사, 부당수사에 대해 설명하고 본인 진술도 듣지 않고 입건지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appeal하고 옴”이라고 적혀 있다. 문제의 ‘채변이 윤장’(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추정)과 통화 기록이 바로 다음에 나온다. 채 전 총장과 윤 전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선후배이자 검찰 ‘특수통’ 라인으로 친분이 두터웠다. 채 전 총장이 검찰총장이던 2013년 4월에 윤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팀장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9월 21일 기록에는 “A변호사가 18:34에 연락 옴. 검찰 내일 지휘 내린다. 입건 허락은 아니고 수사 보강 지시 내린다. 시간 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란 내용이 들어 있다. 실제 당시 검찰은 이 시기에 이 후보자에 대한 경찰의 세 번째 입건지휘 요청에 대해 ‘보강수사하라’고 입건을 허가하지 않았다.

법조계와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경찰 내사 사건의 입건을 세 번이나 막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해당 사건은 당시 경찰 최고위층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김정훈 전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곧 입건하겠

다”고 수사 의지까지 밝혔었다. 하지만 첫 단계부터 차질이 생기면서 결국 수사는 동력을 잃었다. 당시 해당 사건 관련 경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전이라 특히 정치인 사건은 검찰에서 허락을 안 해주면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채 전 총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내가 속한 법무법인 서평에서 해당 사건을 수임한 것은 맞다”면서도 “내가 그 사건 수행 변호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하거나 뭔가 역할을 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 측은 “채 전 총장을 변호사로 선임한 적도 없고, 윤 전 대통령에게 사건 청탁을 한 적도 없다”면서 “해당 사건은 혐의가 없다고 끝난 사건”이라고 밝혔다.

비망록에는 이 후보자가 윤 전 대통령과 채 전 총장뿐 아니라 다른 유력 인사에게도 해당 사건에 대한 도움을 부탁한 정황이 나온다. 2017년 9월 14일 비망록에는 B의원이 “C장관에게 이철성 청장의 부당수사에 대해 말해 줌”이라고 쓰였다. 또 2017년 9월 29일 비망록에선 당시 청와대 유력 인사 D씨의 최대 후원자를 통해 경찰 수사의 부당함을 전달했다는 대목도 기록돼 있다. 고위 경찰 출신 등료 의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변호사와의 대응 논의 내용도 적혀 있다.

B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가 당시에 너무 억울하다며 하소연한 기억은 있다”면서 “다만 너무 오래전이라 C장관에게 내가 사건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천하람 의원은 “당시 국회 의원이었던 이 후보자는 비망록에 자신의 형사 사건을 덮기 위해 어떻게 등료 국회의원, 고위 경찰, 청와대 유력 인사, 장관을 접촉했는지 소상히 기록했다”며 “사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뿌리 뽑겠다던 권력형 비리이고 사건의 암장 아니냐”고 말했다.

천 의원은 “심지어 비망록 중에는 고위 경찰 출신인 국회의원도 ‘활용’하겠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다. 후보자는 기획예산처 장관은 커녕 어떠한 공직에도 적합하지 않은 윤리관을 가진 것이 아닙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남준·임성빈 기자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한국과 미국에서의 통증·재활 분야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양·한방 통합 치료로 집중 케어 해드립니다!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Kenzie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
■ 뇌졸증/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 치료
보表述 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 치료
한방 침 치료, 전기 치료
관절/근막이완 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원장 김우기 DPT, LAc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김우기

통증·한방·재활 물리치료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받습니다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첸들리 지역]

www.hyebanmd.com

KOREAN BBQ

HYEBAN



한국식 BBQ 구이 전통한식



한식의 품격

4명의 셰프가 빚어낸
정통의 맛을 전합니다.

깊이 있는 정통 한식의 맛!!



정통 한식 구이의 불맛과
신선함이 만나는 곳,
엘리콧시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혜반(HYEBAN)”에서
완벽한 점심을 즐기세요!



월, 화, 목, 일
수요일
금, 토

오전 11시 ~ 오후 10시
정기 휴무 / CLOSED
오전 11시 ~ 오후 11시

즉석 칼국수 신메뉴 출시!

Weekly Special

따뜻한 즉석 칼국수와 깊은 맛의 닭볶음탕
런치 뷔페에서 만나요.~



443.420.3096

HyeBan23@gmail.com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7, Ellicott City, MD 21042

구 인

홀 서버 (Hall Server)

국힘 파국 내몰았다, 장동혁 '밸셀정치'

'당계 논란' 한동훈 제명 후폭풍

장동혁 "결정 뒤집는 해법 고려 안해"
한동훈 "국민과 이번 계엄도 막겠다"
당내선 "장 퇴진" "쇄신 필요" 충돌
지방선거 140일 앞, 내홍 최고조



계 의원은 "장 대표 퇴진운동에 나설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어계인" 세력을 내세운 최악의 비민주적 결정(박정훈 의원)이라거나 "당을 자멸로 모는 사심 정치"(한지아 의원)라는 장 대표 저격 발언도 쏟아졌다.

한동훈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제명하는 문제를 놓고 장동혁(사진) 대표와 한 전 대표가 14일 정면충돌했다. 6·3 지방선거를 140일 앞두고 심야에 전격적으로 제명 결정이 이뤄지자 제1야당의 전현직 대표가 각자 정치 생명을 걸고 마주보는 기차처럼 달리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는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된 '당원개시판 사건'과 관련해 이날 새벽 한 전 대표의 당직을 박탈하는 최고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의가 윤리위 결정을 의결하면 징계는 최종 확정돼 즉각 효력을 갖게 된다.

한 전 대표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며 "국민·당원과 이번 계엄도 막겠다"고 제명을 계엄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이라며 제명 결정의 배후로 장 대표를 겨냥했다.

예상치 못한 일격에 새벽부터 발칵 뒤집힌 친한계는 이날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다. 한 전 대표와 친한계 의원 10여 명은 오전 8시30분 서울 마포의 모처에서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격 양된 반응도 잇따랐다. 부산 지역 친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당원개시판 사태'를 이유로 당 윤리위원회가 자신을 제명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밝히기 위해 국회 소통관으로 향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지도부 인사들도 옹호 발언을 이어갔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당의 원칙과 기강을 바로 세우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제명을 반겼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BBS 라디오에서 "당원개시판 문제를 그냥 덮자고 할 순 없는 노릇"이라며 "이 문제를 갖고 너무 오래 끌었고,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일종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채널A 유튜브에서 "윤리위 결정은 윤석열 시대가 당에 정리되는 과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두 동강이 났다. 이날 오전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서울시당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자 다선 의원들은 "파국을 막아야 한다"며 양측의 자제를 요구했다. 조배숙(5선) 의원은 "정당의 윤리 징계가 분열의 종착역이 돼선 안 된다. 당 지도부의 재고를 요청 한다"고 했고, 권영세(5선) 의원도 "제명 치분은 과한 결정이다. 최고위가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고, 한 전 대표도 적극 소명하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장동혁 지도부는 외려 속도 전을 펼 가능성이 크다. 15일 최고위원

회의와 의원총회가 예정된 만큼 최고위를 연 뒤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최고위 결정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고위 구성원 9인 중 제명에 공개 반대한 이는 양향자·우재준 최고위원 둘뿐이어서 현재로선 최종 제명 처분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종론이다.

한 전 대표 또한 법적 다툼을 이어갈 공산이 크다.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한 전 대표는 "(재심 청구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친한계인 배현진 의원은 "최고위에서 징계 결정이 나면 당연히 가져분(신청을) 할 것"이라고 했다. 친한계는 제명 확정 전 탈당 가능성에 "당을 떠나 싸울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친한계 내부에선 징계 처분에 대한 가져분 신청 등 법정 공방이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배 의원은 "윤리위에서 바보같이 두 번이나 (윤리위 결정문을 정정했다). 가져분이 인용될 거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윤리위가 "한 전 대표가 게시 글을 작성했다고 판단"이라는 제명 결정문 문구를 "한 전 대표 가족 명의로 추정되는 게시글"이라고 수정한 걸 두고 "징계 사유 짜맞추기"라고 괴고들고 있는 것이다. 친한계는 이 밖에도 ▷당무감사위 조사 결과 조작 가능성 ▷충분한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제명 과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장 대표와 가까운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당에서 당헌·당규 절차상의 문제가 없도록 유권해석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가져분을 걸어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국희·양수민·박준규 기자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해야" 자문위원 다수가 동의했다

〈검찰개혁추진단〉

검사가 미진한 송치 사건 보완 수사
찬성파 "시간·비용 측면서 효율적"
반대파 "무소불위 검찰 부활 불씨"
수차례 격론, 유지 주장이 우세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던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위원장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성원 다수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주장해 온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이에 반대해 온 자문위원

중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은 이날 추진단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예고안에 반발하며 사퇴했다.

보완수사권이란 경찰 등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관해 검사가 공소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미진한 부분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현행 검찰형법·형사소송법은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자문위는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지난 달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보완수사

권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고 한다.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논의하면서 검사의 권한이 쟁점으로 떠오를 때마다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가 꼬리표처럼 논의 테이블에 따라 올라왔기 때문이다.

반대파는 "보완수사권은 향후 무소불위의 검찰을 부활시킬 수 있는 불씨가 되기 때문에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찬성파에서는 "1차 수사기관에 다시 보완수사를 맡기는 게 적절하나"는 취지의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반대파는 "1차 수사가 너무 미진하거나 이상하면 제3의 수사

주체에 맡기면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주장했고, 찬성파는 "그러면 사실상 원점에서 재수사하는 것인데, 왜 그런 불필요한 절차를 둬야 하느냐"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한다.

특히 찬성파 사이에서는 "수사기관의 기록을 검토한 검사가 직접 필요한 부분만 보완하는 게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우세했다고 한다. 입법예고안에 기소 사건의 무죄율과 무죄 사유를 검사의 근무 평정에 반영하도록 한 것에 대해선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기소 검사에게 무죄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결국 보완수사 없는 기계적 공소 제기·유지는 피고인에겐 유리

하고, 피해자에겐 억울한 결과로 귀결될 것이란 게 찬성파가 형성한 공감대였다.

자문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찬성파 안에서는 보완수사권 범위에 관해 '전면적 허용'과 '최소한으로 제한' 등의 주장이 혼재했지만, 반대파는 '검수완벽'(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꼬리표처럼 고수해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여권 핵심 인사는 "보완수사 폐지에 따른 사건 압장과 국민의 피해를 고려한다면 제한적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게 합리적이지만, '검사는 악(惡)'이라는 논리 앞에선 쇠귀에 경읽기"라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박&우 합동법률사무소

Park & Woo, P.C.

WWW.PARKWOOLAW.COM

믿음과 전문성, 당신 곁에 있는 법률 파트너

박&우 합동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35년 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합니다. 법률 문제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상담, 박&우와 함께 하세요!

민사, 상사, 형사, 회사법, 부동산, 상속, 유언, 비자(F, H, E, L, R), 이민 신청, NIW, 시민권, 추방 재판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박상근 변호사

- 서울 법대, 대학원 졸업
- George Washington 법대 법학 석사
- Fairfax County 인권위원회 부의장(전)
- 버지니아 주의회 이민 난민 정책위원(전)
- 북미주 CBMC 총연합회 회장(전)
- VA, MD, DC 변호사 자격



우시영 변호사

- Georgetown 법대 법학 석사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이민변호사협회 정회원
- 주요 일간지 이민법률 상담 변호사
- 아태법률구조센터(APALRC) 법률 통역(전)
- VA, NY 변호사 자격

박&우 합동법률사무소
Park & Woo, P.C.

(703) 941-7395

4308 Evergreen Lane, Suite G, Annandale, VA 22003 | E-mail: info@parkwoolaw.com



안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우메肯 NEW 아이클리어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눈 - 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꼼꼼하게 잘챙겨 넣은 우메肯 NEW 아이클리어를 추천합니다”



아이클리어(정)



정 미란 안과 전문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한국 소아안과학회 (KAPOS) 정회원
한국 베내장굴절수술연구회(KSCRS) 정회원
미국 베내장굴절수술연구회(ASCRS) 정회원
미국 안과학회(AAO) 정회원

개별PTP 포장

- 산소와 열로부터 보호
- 위생적인 개별포장
- 간편한 휴대성

소중한 눈도 믿을 수 있는 우메肯에서 지켜드립니다

- ✓ 눈 노화, 안구 건조증과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피곤한 눈을 지켜주는 최적의 보충제
- ✓ 눈의 영양 공급이 필요한 어린이부터 눈 노화 집중 케어를 원하는 시니어까지

눈 건강 개선 특수 성분 8가지 함유

- 루테인 • 제아잔틴 • 빌베리 추출물 • 마카베리 추출물 • 포도씨 추출물 • 자색고구마 분말 • 은행잎 추출물 • 비타민 A

이런 분들은 꼭 드세요

- | | |
|--------------------------------------|-------------------------------|
| • 일상생활에서 침침한 눈으로 자주 불편함을 느끼는 분 | • 사물을 바라볼 때 편안하지 않고 흐리게 보이는 분 |
| • 스마트폰, TV, 컴퓨터 장시간 사용하시는 분 | • 안구건조증 및 눈 노화의 집중 케어를 원하시는 분 |
| • 노화, 스트레스, 유전적인 요인으로 황반변성 위험도가 있는 분 | • 눈의 영양 공급이 필요한 어린이 |

888·941·3311 umec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무인기 대북 사과하자는 정동영, 너무 나갔다는 위성락

정 “북 지도자도 서해 피격 때 사과 무인기 재판 결과 따라 상응 조치” 위 “사실 파악 단계, 냉정히 대처를”

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한 대 대해 정부 내에서 또다시 이견이 도드라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14일 “상응 조치”를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감 표명 가능성까지 시사했는데, 같은 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균형된 입장 하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인기 사태로 ‘자주파’와 ‘동맹파’ 간 의견 차이가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오전 통일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과 관련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우리 국민과 대통령에 대해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사과, 유감 표명을 했다”며 “(재판에서)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면 우리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북한이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를 요구한 것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다 나온 발언인데, 윤 전 대통령의 해당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읽히면서 정부 안팎에선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20년 9월 북한군은 표류 중이던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직후 통지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심석용 기자

정 장관은 또 전날 김여정 노동당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한국에 “사과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한 데 대해 “남북 간의 연락망과 소통 채널이 복구되고 대화를 재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담화전으로 의사소통하는 상황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하며 무인기 사태를 남북 간 대화 복원의 계기로 삼으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통일부 당국자도 전날 “우리의 대응에 따라서 남북 간 긴장 완화의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위성락 실장은 같은 날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지금은 북한과 함께 무엇을 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경위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지, 아직 사과 등 후속 조치를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또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된다는 등의 희망적 사고를 전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상황이) 거기까지 가 있지 않다”며 “차분하고 담담하게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의 대화 접점이라는 측면만 아니라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북한이 과거 청와대와 용산 등으로 무인기를 보낸 것도 정전협정 위반인데, 균형된 입장 하에서 대처해야 한다”라고 했다. 민간에서 무인기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해도 북한 역시 무인기를 남측으로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는 만큼 일방적 사과보다는 균형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위 실장은 “개개인이 희망적 사고를 하거나 우리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해석하려 할 수도 있다”면서도 “북한과 관련해선 냉정히, 냉철히, 차분히 대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현우 기자



정 빙 정류장..역대 최장 버스파업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이틀째인 14일 서울역 환승센터 정류장이 텅 비어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서울 시내버스는 전체 7018대 중 562대(8%)만이 운행됐다. 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과 이에 따른 임금 인상을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미 역대 파업 최장 시간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지하철과 전세버스 등 대체교통수단 투입을 확대했다.

[연합뉴스]

현우진·조정식, 교사에게 최대 1.8억 주고 문제 거래

〈일타강사〉

배우자 명의 계좌로 거래한 교사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문제 등을 부정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일타강사’ 현우진(39)씨와 조정식(44)씨가 거

래의 대가로 현직 교사에게 수천만원

에서 억대에 달하는 금품을 건넨 것으

로 파악됐다.

14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

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수학

강사인 현씨는 2020년 3월부

터 2023년 5월까지 고교 수학

교사 A씨에게 수학 시험 문

항을 받는 대가로 1억7909

만원을 보냈다. 현씨는

고교 교사 B씨에게도

2020년 3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1억 6778만원을 전했다. 현씨는 교사 C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

지 7530만원을 보내며 배우자 명의 계

좌를 활용하기도 했다.

영어 강사인 조씨는 2020년 12월 자

신의 강의용 교재를 제작하는 업체 소

속 직원 D씨에게 수업에 사용할 영어

문항을 현직 교사로부터 받아줄 것을

지 시했다. 이후 D씨는 현직 교

사 2명에게 영어 문항

제작해 주는 대가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8351만원을 제

공했다.

조씨는 2021년

1월, 직원 D씨에게 “수능 특강 교재 파

일이 시중에 안 풀렸는데 현직 교사 E

씨를 통해 미리 받아달라”는 취지로 지

시하기도 했다.

D씨는 현직 교사 E씨로부터 출판 전

이던 ‘2022학년도 수능특강 영어독해

연습’ 교재 파일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

태은)는 지난달 29일 현씨와 조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씨는 “현직 교사 신분인

EBS 저자와 문항 거래를 한 것은 맞지

만 문항 공모, 외부 업체를 포함해 다

양한 문항 수급 채널 중 하나였을 뿐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조수빈 기자

자문위 16명 중 6명은 “중수청, 검찰 특수부 격상시킨 꼴” 반발

수정 이원희에 반대 집단사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을 만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 16명 중 6명이 철저한 검찰개혁을 주문하면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보학·황문규 교수와 김성진·김필성·장병식·한동수 변호사는 전날 법안이 발표되자 자문위 논의에서 후퇴한 내용이라고 반발하였다. 이들은 “중수청 법안은 현행 검찰의

특수부를 중수청으로 격상시켜 제2의 검찰청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검사들이 이 계속 특수·중대범죄 수사를 독점해 향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청을 부활시키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의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구조를 지적했다. “검사 출신은 특별대우하기 위해 수사사법관이라는 지위를 부여했다”며 “이 원적 조직 구조는 조직 내 학파를 해치고 갈등을 조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수사관을 모집하는 데 결정적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자문위 내에선 중수청을 일원화 구조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추진단은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가 중수청 조직 안착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사법관 지위를 별도 보장하기로 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전직 자문위원들은 검찰청을 전신으로 하는 공소청이 중수청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중수청이 수사를 시작하

면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공소청은 부당한 수사가 진행될 때 중수청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들은 공소청 조직 수장에 검찰총장

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한 것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추진단은 검찰총장

은 헌법에 규정된 만큼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중수청 근무를 결정해야 할 검사와 검찰 수사관과 경찰 내에선 법안 입법예고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라는 분위기다. 보완수사권 등 실질적인 쟁점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미뤄뒀기 때문이다. 1년 내로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중수청을 출범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다 보니 기관 설립을 위한 입법을 앞당긴 결과다.

중수청 수사사법관은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처분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중수청이 영장을 신청하는 건 공소청이다. 영장 청구의 적법성 검토를 맡는 공소청 검사와 역할이 중복된다.

정진호·석경민 기자



26년 over 120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3780 레이저 치료경력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nt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Penn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공동발표서 빠진 CPTPP... 청와대 “한국 가입 뜻 재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조세이 탄광, 일 총리가 먼저 제기
“과거사 문제 풀어갈 실마리 될 것”
이견 못 좁힌 일본산 수산물 수입
“실무 부서간 협의 필요한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 뜻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에게 전했
다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
리핑을 하고 “(전날 정상회담에서)
CPTPP 논의도 있었다”며 “우리가 (가
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
다”고 밝혔다.

CPTPP는 일본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국은 2021
년 9월에 CPTPP 가입을 공식적으로
신청했지만, 아직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해결
을 한국의 가입 선결조건으로 일본이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
와 관련해 “한국이 과학적 근거에 기
반한 접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국 간
충분한 의사소통을 해나가고 싶다”는
뜻을 이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일본 측
은 밝혔다.

당초 정상회담을 앞두고 CPTPP 가
입과 관련한 내용이 공동 언론 발표에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지만 결국
담기진 않았다. 양 정상이 CPTPP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각자 입장만 밝
혔을 뿐 이견을 좁히진 못한 것으로 보
인다. 위 실장은 “이 문제는 서로 좀 더
실무적인 부서간 협의를 요하는 문제”
라고 설명했다.

과거사 논의의 물꼬를 튼 것으로 평
가받는 한·일의 조세이(長生) 탄광 수
몰 피해자 신원 확인 협력에 대해 위 실

장은 “이 문제는 단독 회담에서 다카
이치 총리가 제기한 주요 현안 중 첫 번
째로 제기한 이슈”라며 “한·일이 공유
하는 인권, 인도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과거사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
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독도 관련 논의
와 중·일 관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이
뤄지지 않았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한·일 정상의 다음 셔틀외교는 다카
이치 총리의 한국 답방 형식이 될 전망
이다. 위 실장은 “안동도 거명된 바는
있지만 정해진 건 아니다”고 했다.

위 실장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의 방향이 9·19(합의)를 복원한
다는 방향이고, 또 대통령께서 주신
지침이기도 하다”며 “9·19 복원을 검
토하고 있다. 필요한 논의를 하고 있
다”고 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린다”
고 덧붙였다.

윤성민 기자, 나라=오현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4일 나라현 불교 사찰인 호류지(法隆寺)를 방문해 후
루야 쇼우카쿠 관장으로부터 5층 목탑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전민규 기자

취향 저격 선물 외교... 드럼 세트 주고, 등산용 시계 받았다

한·일 정상, 교류 상징 호류지 방문
이 대통령, 악수하며 “손이 차네요”
총리 남편엔 ‘삼성 갤워치’ 선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14일 일본 나라(奈良)에 위치한 호류지(法隆寺)를 함께 방문했다.

일본 방문 이틀째인 이 대통령이 이
날 오전 호류지 남문 앞에 도착하자 미
리 도착해 있던 다카이치 총리는 반갑
게 웃으며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
이치 총리와 악수한 뒤 “손이 차네요”
라고 말하며 웃었다. 두 정상은 주지스
님의 안내를 받으며 호류지의 중심인

금당(金堂)과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탑인 오층목탑, 고대 한·일 교류
의 증거인 백제관음상을 관람했다.

호류지는 607년 세워진 사찰로 세계
최고(最古) 목조 건축물이며 백제 불교
문화가 일본에 미친 영향이 뚜렷하게
남아고대 한·일 교류를 상징하는 장소
다. 일본은 평소 관람이 제한되는 수장
고를 개방해 금당벽화 원본을 볼 수 있
게 했다.

첫날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두 정상
은 둘째 날 다시 만나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
(호류지)에 자주 와보시나. 어릴 때 소
풍도 다니고...”라고 말을 건넸고, 다카
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이 신은 운동화



이재명 대통령이 선물한 한국산 드럼(위 사진)과
다카이치 총리가 선물한 손목시계. 전민규 기자

를 보고 “어제도 이걸 신으셨죠”라고
했다.

두 정상은 친교 행사를 마친 뒤엔 선
물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록밴드를 결성해 드러머로
활동한 다카이치 총리에게 한국 브랜
드(마커스드럼) 드럼과 드럼스틱, 흥
삼, 청국장 분말·환 등을 선물했다. 이

대통령이 건넨 드럼스틱은 목·칠 공예
전문가인 장준철 명장이 나전칠기 장
식으로 한국 전통의 미를 가미해 특별
제작했다. 두 정상은 첫날엔 함께 드럼
을 연주했다.

이 대통령은 뇌경색으로 쓰러져 투
병 중인 다카이치 총리의 배우자 암마
모토 다쿠(山本拓) 전 중의원을 위해

선 유기 반상기 세트와 삼성 갤럭시워
치 울트라를 건넸다.

청와대는 “다카이치 총리 배우자께
서 ‘생생 맛있는 것을 해드리겠다’며 청
훈한 일화에서 착안했다”며 “건강을
회복하길 기원하는 뜻을 담았다”고 소
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등산을 좋아하는
이 대통령에게 태양광 충전과 방위 측
정 기능이 있는 일본 브랜드 카시오의
손목시계를, 김혜경 여사에게 나라 지역
의 전통 봉 제조사 ‘아카시야’의 화
장용 봉과 패우치를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재일동포 간담회를 끝
으로 1박2일 방일을 마치고 귀국했다.

나라=오현석 기자

일본 언론, 한일정상회담 경제안보 협력에 주목

“중·일 갈등 염두”

일본 언론들은 14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전날 정
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대체로 공급망
등 경제안보 분야의 협상 성과를 강조
해서 전달했다.

일본 신문들은 이날 ‘일한 경제안보
논의의 합의’(요미우리), ‘일한 경제안보
논의에 일치’(아사히), ‘경제안보 강화
에 일치’(마이니치) 등 대부분 경제안

보 분야 합의를 제목으로 뽑아 정상회
담 결과를 보도했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작년 11월 국
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을 한 이후 중국이 발언 철회를 요구하
며 경제적인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
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으로 상호 이익을 확보할 협력을 추진
하고 관계 부처 간 논의를 진행해 가기

로 했다며 “이 대통령과 공급망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
다. 이와 관련해 산케이신문은 아예 양
국의 경제안보 협력 추진은 “중국에 의
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을 달았다.

중국은 지난 6일 일본을 상대로 희
토류가 포함된 이중용도(군사·민간 양
용) 물자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 일본
을 압박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도 “중국이 경제적인

압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과 공조
하려는 목적”이라고 경제안보 협력 강
화 취지를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로서
는 자신의 발언에서 비롯된 일중 관계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과 강고
한 관계를 국내외에 보이려는 생각도
있다”고 해석했다.

보수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양국 정
상이 아마구치현 조세이 해저탄광의
유골 DNA 감정에 협력하기로 한 인도
적인 합의의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절하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 언론 발표에서

“1942년 일본 조세이 탄광에서 183명
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수몰 사망한 사
고가 있었고, 80여년이 지난 작년 8
월에서야 유해가 발견된 바 있다”며
“양국은 동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
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이 대통령이 실용외교를 추진
하면서 지지층 일부는 과거사 문제 대
응에 실망하고 있다며 “양국 간 대립이
표면화되며 어려운 조세이 탄광 문제
를 선택해 협력 진전을 어필하려는 의
도가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신성재 변호사 교통사고 / 개인파산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지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Regina Domingo | Chris Shin
Esq.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의)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우리말 바루기

‘캡투자’의 우리말은?

대출이자가 오르고 집값은 떨어지면서 캡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한다. 캡투자 집주인의 잇따른 파산으로 세입자들이 울상이 됐다는 기사가 난 적도 있다. 그렇다면 ‘캡투자’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캡투자’란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방식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캡(gap)은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집값이 상승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엔 집을 팔아도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국어문화원연합회는 이를 대체할 쉬운 말로 ‘시세차익 투자’를 선정한 바 있다. 부동산과 관련해선 ‘하우스풀어’란 말도 자주 듣는다. 하우스풀어(house poor)란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때문에 빙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국립국어원은 ‘하우스풀어’를 대신할 우리말로 ‘내집빈곤층’을 선정했다.

‘프롭테크’란 용어도 부동산과 관련해 종종 나온다. 프롭테크(prop tech)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용어다.

‘영끌족’이란 말도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영혼까지 끌어모은 사람들’의 줄임말이라 볼 수 있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w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①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 · 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홍암범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w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10년 전쯤 반짝하다 주춤했던 인문학의 인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실용적이지 않고 고리타분하다는 평을 듣던 인문학을 소환한 것은 급속도로 다가오는 인공지능(AI) 시대다.

AI 시대가 우리가 살아온 세상의 모습을 확 바꿔놓을 시점이 언제 올 것인지, 그 이후 인간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인문학에서 그 답을 찾으려는 이도 늘고 있다.

특히 인간처럼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AGI)과 가까운 미래에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초인공지능(ASI) 기술은 자칫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지점에서 고색창연한 인문학에 미래의 나침반 역할을 기대하는 이가 늘고 있다.

인문학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과 그 문화, 삶의 근원적인 문제, 정신적 유산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예전 대학가에서 문학, 역사, 철학에서 한글자씩 따서 부르던 이른바 ‘문사철’이 인문학을 대표하는 학문이다. 여기에 언어학, 예술, 종교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다.

인문학의 목적은 인간의 본질을 성찰하는 것이며 이는 곧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다. 인간 그 자체는 물론, 자연과 역사, 시대 속의 인간이 갖는 존재론적 의미를 살피는 것이 곧 인문학이다. 개인을 이해해야 인간의 집합체인 가족, 집단, 사회, 국가,

AI시대의 인문학



임상환
LA중앙일보
OC취재담당·국장

세계를 이해하는 것도 용이해진다.

옛 선조들이 별자리를 보고 길을 찾았듯이 인문학을 배우면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 많은 이가 인문학에 갖는 관심 중 상당 부분은 명확하지 않은 미래를 암중모색하는 담담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기간 유지된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정치와 경제, 사회 부문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어제까지 상식으로 여겼던 것들이 더는 통하지 않는, 세상의 급속한 변화가 가져올 미래는 사회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칫 인간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인문학에 기반을 둔 정책 마련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술자가 혁신을 주도할 때,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이들이 신기술을 현실 세계와 적용하는데 필요한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책임을 마련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이다.

인간의 특질은 사유다. 길을 잊으면 하늘의 별을 바라봤듯이 미래가 불확실하면 사고라는 과정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변화를 모색하게 마련이

다. 인문학은 이공계 학문과 달리, 남녀노소 누구나 접근하기 쉽다. 동서고금의 인류가 늘 비슷한 고민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공감을 끌어내는 것도 어렵지 않다.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는 것은 외부에서 주입되는 정보에 매몰된 이들이 독자적인 사고와 판단 능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

공교롭게도 오렌지카운티의 대표적 평생 공부 공동체인 재미지기와 OC시사포럼은 올해 첫 강좌로 인문학적 소양을 쌓는데 도움이 될 주제를 선택했다. 가든그로브에 교실을 둔 재미지기는 ‘앉아서 하는 인문학 세계 일주’ 강좌를 마련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주요 여행가, 탐험가의 발자취를 따라 지구를 한 바퀴 둘러보는 특이한 형식의 강좌다. 박영규 재미지기 대표는 시와 소설, 영화, 시청각 교재를 동원해 모임의 이름처럼 재미있는 강좌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AI, 양자 컴퓨팅 등 신기술로 미래 사회를 전망하는 강좌를 마련한 OC시사포럼회는 올해 ‘트럼피즘 이해와 글로벌 극우화 현상’이란 주제의 온라인 강좌를 총 13회에 걸쳐 진행한다. 서명룡 대표는 강좌를 통해 정치체제와 경제구조의 변화, 사회심리학적 시각, 종교와 테크놀러지의 역할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문학이 다시 주목받는 시기, 오렌지카운티 한인 사회의 인문학 관련 강좌들이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궁금하다.

열린광장

새해, 삶의 마디를 단단하게



최성규
베스트 영어훈련원장

스티브 잡스가 있다.

그는 그의 일생에서 세 번의 중요한 고비가 있었다고 2005년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 연설에서 밝혔다. 그는 어려울 때마다 튼튼한 마디를 만들 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활용했다.

첫째는 입학한 지 6개월 만에 대학(Reed College)을 중퇴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는 18개월을 더 대학에 머물며 흥미를 느끼는 과목을 청강 했다. 이때 배운 지식은 최초의 컴퓨터 매킨토시에 그대로 활용되었다.

두 번째는 30세에 자신이 세운 애플에서 해고된 사건이었다. 처음에는 좌절감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실리콘 밸리를 떠날까도 생각했으나, 다

시 시작하기로 생각을 바꾸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컴퓨터 애니메이션 영화사인 피사와 네스트를 만들었다. 우여곡절 끝에 애플이 두 회사를 매입하고 그는 다시 애플의 책임자가 되었다. 이때 네스트에서 개발한 것들이 애플의 브랜드를 이루는 핵심이 되었다.

세 번째는 그가 죽음을 선고받은 일이었다. 그는 의사로부터 치료가 불가능한 퀘장암이어서 6개월밖에 살 수 없으니 주변을 정리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이때 죽음 앞에서는 모든 자부심 외부의 기대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모두 사라지고 진실로 중요한 것만 남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것이다.

누구에게나 삶에 전환점이 될 만한 일은 일어난다. 어떤 사건이든, 새해와 같은 시간이든, 어떤 희망의 끈으로 마디를 만들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가 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2026년은 단단한 마디를 만들어 더 멀리 갈 수 있는 해가 되길 희망한다.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진료 과목

- 모든 통증치료 (좌골 신경통, 두통, 목디스크통증, 요통, 오십견, 관절통, 손목통증, 무릎통증 등)
-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 비만
- 만성피로
- 소화장애, 순환장애



침·부황·뜸·한약 (치료제, 보약)



한국 공진단 판매

한방에서 처방되는
명방 중에서도
으뜸인 최고의 보약!

원장 채여혜

- 복경증의학대학 중의과 졸업
- 중국국의대사 연정화 교수님께 사사
- 상해중의학대학 중의학박사
- 임상 26년 경험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http://chaiorientalmedicine.clinic/>

진료 시간

• 평일: 9am-5pm • 토요일: 9am-1pm

• 야간진료: 예약환자에 한함

글로벌 동료평가 도입 등… 대학 연구평가, 이제 판 바꿔야

김현철의
퍼스펙티브연세대
인구와 인재연구원장
연세대 의대 교수

는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정한 주제 위주의 현재 우리 방식이 연구자의 자발적인 호기심을 암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모 아니면 도' 식의 편당 구조다. 수백억원 규모의 사업이 단 1점 차이로 결정된다. 정부 주요 사업에서 탈락한 대학은 후폭풍에 시달린다.

BK21에 탈락한 학과는 연구실 운영비, 대학원생 장학금 등 기초 인프라 전반에 흔들리는 등 상당한 충격을 받는다. 미국 역시 프로젝트 기반의 경쟁적 편당이 주를 이루지만, 미국 대학은 연구비 총량이 압도적으로 많고 편당 소스가 다양해 특정 사업 하나에 연구 실의 존폐가 결정되는 일은 드물다.

넷째는 양적 지표와 편협한 질 평가다. 논문 편수와 IF 중심 평가는 연구자를 '평가 기준에 맞춘 연구 전략'으로 이끈다. 의학과 과학계에서 IF 10이 좀 넘는 특정 저널에 논문을 공장처럼 양산하는 학자가 많은 이유가 이런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다섯째는 자국 중심의 폐쇄성이다. 행정과 심사가 국내에 국한되어 '우리끼리의 리그'가 된다. 글로벌 공동연구를 외치지만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연구자가 자력으로 연구비를 신청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뿐이겠는가? 대한민국 학계는 오랫동안 많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여겨왔다. 양적 성장은 이뤘으나 연구의 진짜 혁신과 임팩트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제 연구 생태계의 판을 짐작하고 전환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연구 생태계 옥죄는 5대 장애물

대한민국 대학의 혁신 부족은 연구자의 능력이나 노력 부족보다는 제도 설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그 장애물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프로젝트 중심 지원 체계(PBS, Project Based System)의 함정이다. 현재 연구비 대부분이 용처가 정해진 프로젝트형이다. 연구자는 독립적 탐구자보다 국가사업의 과제를 수행하는 대리인이 된다. 연구가 진리 탐구가 아니라 정부·하청업체의 업무처럼 전락한 환경에서, 실패를 무릅쓰는 혁신은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해외는 기관 자체를 지원하는 블록 편당(영국·홍콩)이나 기금형(미국)이 우세하다.

둘째는 창의성을 제약하는 톱다운(Top-down)식 접근이다. 물론 정부가 연구 주제를 기획하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모든 예산을 연구자 자율(Bottom-up)에만 맡길 경우, 국가적으로 생존이 걸린 중요 분야가 소외되

는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정한 주제 위주의 현재 우리 방식이 연구자의 자발적인 호기심을 암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모 아니면 도' 식의 편당 구조다. 수백억원 규모의 사업이 단 1점 차이로 결정된다. 정부 주요 사업에서 탈락한 대학은 후폭풍에 시달린다.

넷째는 양적 지표와 편협한 질 평가다. 논문 편수와 IF 중심 평가는 연구자를 '평가 기준에 맞춘 연구 전략'으로 이끈다. 의학과 과학계에서 IF 10이 좀 넘는 특정 저널에 논문을 공장처럼 양산하는 학자가 많은 이유가 이런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다섯째는 자국 중심의 폐쇄성이다. 행정과 심사가 국내에 국한되어 '우리끼리의 리그'가 된다. 글로벌 공동연구를 외치지만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연구자가 자력으로 연구비를 신청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뿐이겠는가? 대한민국 학계는 오랫동안 많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여겨왔다. 양적 성장은 이뤘으나 연구의 진짜 혁신과 임팩트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제 연구 생태계의 판을 짐작하고 전환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될 성부른 나무 키우는 홍콩·영국

영국을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가 지표의 함정을 넘어 연구의 본질적 가치를 측정한다. 홍콩은 영국의 연구평가 시스템을 모델로 한 RAE(Research Assessment Exercise)를 통해 6~7년마다 학과별 정밀 평가를 한다. 우리처럼 단절적인 경쟁이 아니라, 평가 결과에 비례해 연구 재정을 연속적으로 배분하는 구조다.

우리나라 연구 예산의 약 90%가 목적형 프로젝트 사업인 반면, 홍콩은 대학에 직접 배분되는 자율 블록 편당 비중이 25~30%에 이른다. 이 시스템은 성과를 학과별 정원과 교수 채용 정

한국 대학 및 교수 평가의 5대 장애물

- 자율성 있는 프로젝트 중심 지원 대학의 재량권이 박탈된 채 단기 성과에만 집착하는 구조
- 창의성을 가두는 톱다운(Top-down) 기획 연구자의 질문보다 국가가 정한 주제가 우선되는 환경
- 모 아니면 도 식의 불연속적 경쟁 단 1점 차로 명암이 갈리는 극단적 편당 구조
- 양적 지표와 편협한 질 평가 논문 편수와 임팩트 페터(IF) 수치에 매몰된 평가
- 갈리파고스적 폐쇄성 내국인 중심의 행정과 심사로 인한 낮은 국제화 수준

한국 대학 및 교수 평가 5대 개선 방향

- '프로젝트'에서 '신뢰 기반 블록 편당'으로 대학에 용처를 맡기는 자율 예산 확대
- '양'이 아닌 '질' 중심 평가 논문 수 압박을 버리고 소수의 대표 연구를 정밀 심사
- '수치'를 넘어서 '글로벌 동료 평가' IF 점수 대신 세계적 석학들이 연구의 깊이를 직접 검증
- 행정 영어 공용화와 심사 국제화 외국인 연구자가 자력으로 신청하고 경쟁할 수 있는 열린 시스템
- 사회적 영향력(Impact) 평가 상아탑을 넘어 정책·산업·사회에 기여한 실질적 성과 반영

2026년 홍콩은 대학 연구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나(표 2)

평가 항목(비중)	평가 방식	결과 활용
연구 산출물 65%	동료 평가(Peer Review)	연구 예산 배분
	해외 석학들이 참여한 패널이 4편의 대표 논문을 직접 읽고 독창성과 엄격성을 1~4등급으로 평가	등급 비중에 비례해 대학별 연구 지원금을 자동 배분
사회적 영향력 20%	임팩트 케이스 스탠더드	대학 평판 및 정원
	연구가 실제 보건, 경제 정책 등 학계 밖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 실질적 증거를 통해 검증	평가 결과는 대학별 학과 정원(T/O) 조정 및 교수 채용 인원 결정의 핵심 지표로 활용
연구 환경 15%	인프라 및 전략 평가	대학 자체 혁신 유도
	대학이 신진 연구자를 어떻게 육성하고 연구 플랫폼을 구축했는지 기초적 체계를 평가	평가 결과가 인사권 및 조직 설계에 즉각 반영되므로 대학 본부가 스스로 연구 최적화 구조로 재설계

원(T/O) 등 대학 운영 전반에 유기적으로 연동시킨다. 평가 결과가 대학의 인사권과 조직 설계에 즉각 반영되기에, 대학 본부는 정부 지시 없이도 스스로 조직을 연구 최적화 구조로 재설계하게 된다.

첫 번째 평가 기준은 '딱 4편의 대표 논문'과 '글로벌 동료평가'다. 교수는 6년간의 논문 중 가장 의미 있는 연구 네 편만 제출한다. IF 수치라는 간접 지표 대신 연구의 깊이와 기여도라는 실질 가치를 직접 판단한다. 만점이 100점이라면 각 논문의 비중은 25점. 톱 저널에 4편을 실었다면 만점에 가깝다. 연구자는 수량 경쟁보다 혁신적 인 연구에 집중하게 된다.

두 번째 기준은 '연구 환경(Envir onment)'이다. 대학이 연구자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지 측정한다. 가령 시니어 교수의 경험과 신진의 창의성이 결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했는지를 평가한다.

세 번째 기준은 '사회적 영향력(Impact)'이다. 연구가 상아탑을 넘어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 입증해야 한다. 정책 변화나 경제적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관료의 서면 확인서까지 요구할 정도로 엄격하다. 필자도 2023년 입은 이미 추진반 내에서 충분한 공감

대를 얻은 사안이다. 이참에 대한민국 대학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평가 체계의 원칙을 제안한다.

첫째, 신뢰 기반 '통합 블록 편당'의 과감한 확대. 현재 '지방대학 육성', '글로벌 대학', '대학 혁신 지원' 등 블록 편당 성격의 사업들이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다. 이제는 이들을 하나로 모으고 규모를 키운 '통일된 블록 편당' 체계가 필요하다. 평가 점수에 비례해 총액 예산을 배분하되, 구체적인 사용처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둘째, 대표 연구 중심의 질 평가 전환. 연구자당 3~4편의 대표 논문의 실제 가치를 심사하자. 톱 저널에 실린 한 편의 논문이 평범한 논문 백 편보다 가치 있다는 사실을 시스템이 반영해야 '논문 공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셋째, 글로벌 동료 평가 도입. 우물안 개구리식 심사에서 벗어나야 한다. 모든 심사를 영어로 진행하고, 국내외의 석학들에게 맡겨, 글로벌 스텐더드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홍콩 RAE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패널의 65%를 해외 석학으로 구성한다.

넷째, 연구 행정의 완전한 영어 공용화. 글로벌 협업을 외치며 연구비 공지 를 '아래아한글(hwp)'로 하는 모순부터 당장 끝내야 한다. 한국어 구사 여부, 국내 체류 여부, 국적과 상관없이 연구비 신청부터 집행, 보고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가능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 영향력(Impact)'을 반영. 상아탑을 넘어 연구가 실제로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 기술 이전, 치료 가이드라인 변화, 정책 반영 등 구체적 증거를 요구하는 '임팩트 케이스 스탠더드'를 도입하자.

AI 시대의 새로운 연구 가치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AI 시대의 연구 가치다. 이미 웬만한 논문은 데이터를 주면 AI가 분석하고 써낼 수 있다. 이런 '채우기식' 논문은 더 이상 성과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제 AI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 즉 존재하지 않던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연구와 심층적 통찰이 담긴 연구만이 진짜 성과로 대접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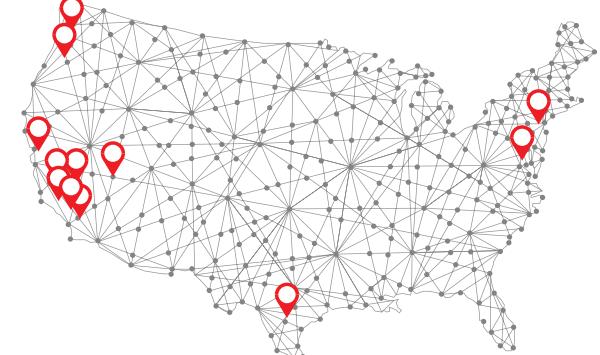
우리 대학을 '프로젝트 따내기 경쟁터'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혁신의 산실'로 만들 것인가? 실력이 검증된 대학과 연구자에게 자율성을 담보하며 과감히 맡겨라. 그것이 멈춰 선 대한민국 대학 경쟁력을 깨우는 확실한 길이다.

보험 에이전트 모십니다!

전미주로 뻗어가는 브리지원 보험과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브리지원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562-896-3400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지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챕터 7·챕터 13·학자금융자 감염
서브챕터 5·챕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시설**한동훈 제명 사태로 드러난 보수 야당의 빨셈정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어제(14일) 새벽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쇄신안을 발표한 지 1주일 만에 쇄신은커녕 당내 갈등을 최대로 증폭시키는 결정을 한 것이다. 오늘 열리는 최고위에서 제명이 의결 될 전망이다. 장 대표는 “윤리위 결정을 뒤집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당명까지 바꾸겠다면서 “이기는 변화”를 외치더니 보수 야당 대표가 이겨야 할 대상이 겨우 당내 반대파였던 것인가.

윤리위는 한 전 대표의 가족이 1000여 건의 당내 계시판 글을 올렸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지 도부를 비방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해 당의 업무를 방해했

다고 제명 이유를 밝혔다. 당원계시판과는 한 전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는 게 사실이다. 가족들까지 가세한 글들의 작성 경위와 의도도 문제지만, 의혹이 불거졌을 때 시인도, 사과도 하지 않아 갈등을 키웠다. 그렇다고 해도 당사자의 해명도 제대로 듣지 않고 전

직 당 대표를 기습 제명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인지는 의문이다. 계시판 글보다 훨씬 심각한 공천 현금 의혹 당시자의 소명을 5시간 넘게 들은 더불어민주당과도 대비된다.

얼마 전까지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틀막’이라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정작 자

닌가. 그러니 장 대표의 의중은 쇄신보다 ‘걸림돌 제거’에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서는 안 될 ‘빨셈의 정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장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빠아프게 사과되어야 한다.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윤리위가 제명 의결 의사봉을 두드릴 무렵 윤 전 대통령이 법정 최후진술을 했다. 특검의 공소장은 “망상과 소설”, 특검팀은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에 대한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 국민의힘은 내부 계

과 갈등조차 극복

하지 못하는 무기력에 빠져들고 있다. 당의 고립과 퇴

행을 자초하는 지부와 당권파의 실책은 이뿐이 아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그제 보수 원로들이 한 전 대표 징계를 우려하자 “평균연령 91세 고문님들의 민망한 아집”이라고 비하했다.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폐륜”에 비유하기도 했다.

장 대표 주변에 병풍을 친 당권파들의 과격 발언이 강성 지지층에 사이다처럼 시원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발언이 나올수록 국민의힘이 불잡아야 할 중도 층의 민심은 멀어져 갈 뿐이다.

수권정당이 갖춰야 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품격을 보여주지 못하면 당의 간판을 백번 바꿔본들 유

권자는 외면할 것이다.

“이기는 변화” 외치고 1주일 만에 반대파 축출
윤 절연 못하고 고립과 퇴행을 쇄신으로 착각

라고 제명 이유를 밝혔다. 당원계시판과는 한 전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는 게 사실이다. 가족들까지 가

세한 글들의 작성 경위와 의도도 문제지만, 의혹이 불

거졌을 때 시인도, 사과도 하지 않아 갈등을 키웠다.

그렇다고 해도 당사자의 해명도 제대로 듣지 않고 전

직 당 대표를 기습 제명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인지는 의문이다. 계시판 글보다 훨씬 심각한 공천 현금 의혹 당시자의 소명을 5시간 넘게 들은 더불어민주당과도 대비된다.

얼마 전까지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틀막’이라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정작 자

기 당의 징계 절차에선 민주주의의 원칙을 어긴 것

사법 공방 속 방치된 홈플러스의 회생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4일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회장 등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여기에 임원 3명은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와 감사보고서 조작 혐의도 받고 있다. 제기된 혐의는 향후 보강 수사와 재판을 통해 엄정히 따져야 할 일이다.

문제는 여전히 공회전하고 있는 홈플러스 회생 핵심이다.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는 다섯 차례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하며 매각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결국 홈플러스는 구조조정과 기업형 수퍼마켓(SSM) 분리 매각으로 방향을 틀 상태다. 폐점도 잇따르고 있다. 가상·일산 등 5개 점포가 문을 닫은 데 이어 오는 31일에는 시흥점 등 5곳이 추가로 영업을 중단한다. 하지만 홈플러스의 이런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국내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는 직접 고용 인원만 2만 명에 달한다. 포스코나 대한항공보다 많다. 임점 한 중소 상인과 납품업체의 간접 고용까지 따지면 10

만 명가량의 생계가 홈플러스에 달려 있다. 이런 홈플러스가 청산 위기에 내몰린 데는 최대주주 MBK와 경영진의 책임이 가장 크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상당 금액을 홈플러스 자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조달했다. 인수 이후에는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짜 점포를 잇따라 팔았다. 당시에도 비정한 사모펀드의 민낯을 보여주는 행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홈플러스의 경쟁력은 크게 약화했다.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MBK가 책임감을 갖고 실질적인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은 충분히 타당하다.

정부 역시 이런 사모펀드의 ‘먹튀’ 경영 행태를 제대로 감시하고 제동을 걸지 못한 책임이 있다. 특히 정치권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일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난해 11월 일몰을 맞았지만, 국회에서 연장됐다.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실상은 상인들 표를 노린 법이었고, 이후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쪼그라들고 규제 무풍지대에 있던 쿠팡만 팽창했다. 홈플러스를 인수하고 농협중앙회 등을 압박하는 것보다 이런 시대착오적 법부터 손질해 회생의 걸림돌을 치워주는 게 정치권이 우선 할 일이다. 법정관리 1차 기한은 오는 3월 3일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MBK, 정부, 정치권 모두 사태 해결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

윤석열 사형 구형, 반복된 역사

정효식의
시시각각

時 視 角 角



“고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담한 역사가 반복됐다. 박여수 내란특검보는 13일 오후 9시35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 박 특검보가 낭독한 25쪽 분량 사형 구형 논고문의 핵심은 재발 위험성이었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실현할 최고의 정치제도지만 극단적인 정치 세력에 의해 파괴될 수 있고, 향후 유사한 현정 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다”며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한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형뿐인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아 양형 참작(감경) 사유가 없다고 했다. 사형 구형은 조은석 특검의 결정이었다고 한다.

30년 전인 1996년 8월 5일 같은 417호 법정에서 군사반란 및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김상희 당시 서울지검 부장검사가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논고문에서 “12·12 및 5·18 사건은 하극상에 의한 군사반란과 현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이라며 “국민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고 역사 발전의 수레바퀴를 오류와 퇴보의 늪으로 떨어뜨린 반국가적·반역사적·비인도적·반민주적 범죄”라고 했다.

“억지와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는 대목도 윤 전 대통령 구형 이유와 닮았다. 두 논고문에서 굳이 차이를 찾자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겐 “정권 찬탈”,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권력 독점과 장기집권”을 범행 동기로 봤다는 점 정도다.

반복된 역사의 피해는 국민 뜻이다. 그날 느닷없는 계엄령에 놀란 뒤 14개월 째 탄핵과 수사·재판을 지켜보며 천불이 나는 날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9 일과 13일 각각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진 변호인들의 31시간 유례없는 법정 필리버스터에 짜증은 덤이었다. 가장 큰 피

해는 국민들이 가족과 이웃,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로 ‘두 쪽 난나라’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점이다.

사형 구형을 받은 장본인이 14일 오전 1시 최후진술에서 진정한 사죄와 통합 호소는커녕 “비상벨 게임”이라며 분열에 기름을 부은 건 죄악이었다. “망국적인 국회의 독재에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비상벨을 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정치적인 리스크는 있었지만 국민들이 계몽됐다면 응원해 주시는 것을 보고 비상벨이 그래도 효과가 있구나 생각했다”는 대목이다. 오히려 특검을 겨냥해 “정치적 음모에 의해 수사라는 이름을 빌려 이렇게 치밀하게 내란 몫이 기획되고 진행되는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며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강변했다. 망상에 빠진 권력자에 의해 국민은 나라가 결딴날 뻔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리는데 아직 본인만 모른다.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큰 상처

30년전 같은 법정, 전두환 사형 구형
조은석 “전·노보다 더 엄정한 단죄”
현정 질서, 삼권분립 굳건해야 지켜

를 입었다. 특검은 사형으로 역사적 비극의 재발을 막겠다고 했지만 사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은 건강한 민주주의의 회복뿐이다. 삼권분립과 시도를 예방하려면 입법·사법·행정의 삼부가 ‘견제와 균형’ 원리에 따라 굳건히 서면 된다. 입법부, 다수당이 내란사건 재판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란전 담재판부’를 개설하는 법안을 일방 처리한 건 명백한 역주행이다.

검찰을 없애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손에 9대 중대범죄 수사지휘권을 집중시키는 ‘중수청’ 신설 법안을 추진하는 것 역시 민주적 수사 제도를 만들자는 것 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심각한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거나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에 기여하는 국민 편익은 고사하고 자칫 새로운 고리를 낳을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이래서 권력자 손에 현정 질서가 파괴되는 역사의 반복을 어떻게 막겠는가.

사회부국장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ife.joongang.co.kr>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j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불편·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전체계약제휴사 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경제신문 구독료 | 월정 20,000원 | 1부 1,000원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종운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기0019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자작판지(C) 중앙일보·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E2 비자/투자이민
- 취업/가족초청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종교비자/이민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대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전 앞 빌딩 3층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와 함께 하는

건강한 인생 & 의료비 나눔

크리스천들을 위해
의료비 걱정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의료보험아 아닌 크리스천들을 위한 의료비 나눔 사역

- CA, DC, MA, NJ, RI 주: 의료보험 미가입 벌금 면제 혜택
- IN, MO 주: 회비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

30여 년의 신뢰와 경험, CMM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 CMM 회원 혜택

✓ 경제적인 월회비

- 월 \$45로도 질병당 입원 및 수술비 최대 \$150,000
- 25세까지 부양 자녀 1유닛 회비 적용

✓ 글로벌 의료 서비스

- 미국, 한국 포함 전 세계 어디서나 이용 가능
- 원하는 의사와 병원을 자유롭게 선택

✓ 의료비 나눔

- 질병당 최대 \$150,000
-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1,000,000 추가
- 가입 전 질환에 대한 의료비 나눔 범위 확대

✓ 100% 한국어 서비스

- 한국어와 영어 서비스 제공
- 간단하고 신속한 가입 절차
- 연중 언제든지 회원 가입 가능

지금 바로 QR 코드를 스캔하여 나에게 맞는 레벨을 확인하세요!



773-777-8889
2315 Sanders Rd.
Northbrook, IL 60062



www.cmmlogos.org
info@cmmlogos.org

가입문의: 773-777-8889 (Ext.5002) 동부지부 김준범 지부장: 917-535-1144, 917-500-1330

Disclaimer: Logos Missions Christian Mutual Med-Aid (hereinafter "CMM") is a Christian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facilitating the sharing of medical expenses of its members. CMM is a not-for-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in 1996 and federally recognized as a 501(c)(3). CMM is NOT an insurance company. The plan of CMM operation or any other CMM document must not be considered an insurance policy. All assistance from CMM for your medical bills is coming from the totally voluntary participation of CMM members. Membership or being a member of CMM is a missionary concept and signifies participation in and support of a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Regardless of medical expenses sharing and operation of CMM, the member is personally liable for payment of their medical bills.



JAN 15th - JAN 18th, 2026

목, 금, 토, 일 한정 LIMITED TO THU-SUN

아삭한 무 특가! CRISP RADISH SPECIAL!



LIMIT
1 BOX
(Purchase of \$50 or More)
50불이상
구매시

무(박스)
RADISH(BOX) \$999
BOX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Richmond, VA
7701 W Broad St.
Richmond, VA 23294

Sterling, VA
30 Pidgeon Hill Dr, Sterling
VA 20165

Centreville, VA
3400 Centreville Credit Ln
Centreville, VA 20121

Chantilly, VA
12955 Metrolach Dr
Chantilly, VA 20191

Annandale, VA
5204 Port Royal Rd.
Springfield, VA 22151

Ashburn, VA
47950 Farmwell Hunt Plaza
Ashburn, VA 20147

Ellicott City, MD
8501 Baltimore National Pkwy
Ellicott City, MD 21043

Catonsville, MD
6520 Baltimore National Pkwy
Catonsville, MD 21228

Rockville, MD
1922 Veirs Mill Rd
Rockville, MD 20851

Gaithersburg, MD
221 Muddy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산불 피해 부지 40%, 투자자가 선점

레드핀, 토지 거래 분석
‘재난 자본주의’ 비판에
“재건에 기여” 반론도

이튿 파이어로 주택 수천 채가 불에 탄 알타데나에서 최근 거래된 빈 부지의 거의 절반을 투자자들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부동산 매물 플랫폼 레드핀의 리서치팀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7월부터 9월까지 LA카운티 산불 피해 지역의 토지 거래를 분석한 결과, 퍼시픽 팰리세이즈의 빈 부지 거래 가운데 약 40%가 범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알타데나와 말리부에서는 빈 부지 거래의 약 44%가 투자자에게 매각됐다.

레드핀의 세하리아르 보카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재난 이후 투자자들이 유입되는 현상은 드물지 않다”며 “빈 부지는 가치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한 뒤 되파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리서치팀은 퍼시픽 팰리세이즈(90272)와 알타데나(91001), 말리부(90265)의 집코드 별로 거래를 분석했다. 매수자 명칭에 LLC, Inc, Corp, Homes 등의 단어가 포함된 경우 투자자로 분류했다.

리서치 결과 모든 지역에서 빈 부지 거래가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는 7~9월 119개 부지가 거래됐고 알타데나에서는 61건이 거래됐다. 산불 이전인 2024년 같은 기간에는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알타데나에서 빈 부지 거래가 전혀 없었다. 말리부는 산불 이전에도 일부 빈 부지 거래가 있었지만, 당시 투자자 매입 비중은 약 21%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10월 비영리 단체 ‘공정 경제를 위해 전략적 행동’이 발표한 보고서와도 유사하다. 이 보고서는 이튿 파이어 피해 지역의 부동산 거래 가운데 약 49%가 범인에게 넘어갔다고 밝혔다.

의회와 시민단체들은 투기적 개발 저지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0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AB851은 2027년까지 산불 피해 지역 부동산에 대한 무단 매입 제안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단 매입 제안은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내놓지 않았는데 구매자가 먼저 연락해서 “집을 사겠다”고 제안하는 것이다.

비영리 단체 그린라인 하우징재단은 알타데나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유주들로부터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익만을 추구하는 투자자가 아닌 이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선택



산불 피해를 입은 알타데나 주택가. 산불 피해를 입은 이 지역의 주택 부지 가운데 44%가 투자자에게 팔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 단체는 주택을 재건한 뒤 첫 주택 구매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투자자 매입을 ‘재난 자본주의’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재건에 기여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보카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 활동이 꼭 지역사회에 해롭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충분한 자본을 가진 투자들은 환경 오염 정화와 최신 화재 안전 기

준을 충족하는 주택 건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의 향후 계획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알타데나 주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해당 주택들이 매매용인지 임대용인지, 어떻게 지어질지 알 수 없는 데다 역사적으로 흑인 커뮤니티였던 이 지역에서 흑인 가정들이 세대 간 자산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LA카운티 이웃주택서비스의 로리

게이 대표는 LA 부동산 시장 전체로 보면 알타데나에서 거래되는 부지 수는 아직 많지 않다고 말했다.

레드핀 보고서에 따르면 7~9월 동안 알타데나에서 거래된 부지는 61건에 불과하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매물이 나올 것”이라면서도 재건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만난 대부분의 가정은 떠나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남을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안유희 객원기자

소셜 연금으로 은퇴 생활…가주선 ‘턱도 없다’

연간 2만2861불…필수 생활비의 27% 불과
‘근로소득의 40% 보전’ 크게 미달, 최하위권
전국 평균 38%, 캔자스는 무려 44.8% 충당

근로소득의 약 40%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설계된 소셜 연금이 가주에서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재정 정보 사이트 파이낸스버즈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에서 65세 이상의 일반적인 은퇴자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필수 연간 지출은 8만4513달러지만 평균 소셜 연금 규모는 연 2만2861달러로 고작 27.1%에 불과했다. 연간 지출은 주거비, 의료비, 식비, 보험비 등을 포함해 산정했다.

이는 전국 기준 6만1824달러의 생활비 중 연금이 38.0%(2만3478달러)를 충당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전국 평균으로는 제도의 목표인 40%와 근접해 있다.

소셜 연금의 가치가 낮은 곳은 생활비 수준에 따라 같았다. 특히 가주는 비싼 생활비 탓에 생활비 대비 연금 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이었다. (표 참조)

가주보다 연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는 하와이와 매사추세츠가 유일했다. 하와이는 은퇴 생활 비용이 연간 11만1097달러로 평균 2만3634달러의 연금으로는 21.3%밖에 감당하지 못한다. 매사추세츠 또한 생활비 9만3230달러 중 소셜 연금 2만4742달러로는 26.5% 만 커버할 수 있다.

이 밖에 워싱턴DC, 알래스카, 뉴욕, 메인, 몬태나, 오리건, 버몬트가 소셜 연금이 충당할 수 있는 생활비 비중이 가장 작은 지역 10곳에 포함됐다. 이들 모두 40%에 못 미쳤다.

생활비 대비 소셜연금비율 하위 10곳

지역	은퇴 후 생활비(\$)	평균 소셜연금(\$)	비율(%)
하와이	111,097	23,634	21.3
매사추세츠	93,230	24,742	26.5
가주	84,513	22,861	27.1
워싱턴DC	83,585	23,865	28.6
알래스카	78,949	22,858	29.0
뉴욕	78,269	23,880	30.5
메인	70,602	22,554	31.9
몬태나	67,882	22,624	33.3
오리건	69,119	23,800	34.4
버몬트	70,293	24,346	34.6

생활비 대비 비소셜연금비율 하위 10곳

지역	은퇴 후 생활비(\$)	평균 소셜연금(\$)	비율(%)
캔자스	54,961	24,603	44.8
오클라호마	52,179	23,020	44.1
인디애나	56,012	24,388	43.5
미네소타	58,238	25,065	43.0
아이오와	55,827	23,867	42.8
네브래스카	56,630	24,053	42.5
앨라배마	54,343	22,962	42.3
미주리	55,023	23,235	42.2
미시간	58,547	24,705	42.2
테네시	55,827	23,458	42.0

자료: 파이낸스버즈

퇴연구센터에 따르면, 약 5명 중 2명에 가까운 비율이 은퇴 시점에 주거지를 옮긴다. 대부분의 경우 주택 규모를 줄이고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이동한다.

파이낸스버즈는 “소득이 높아 기여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지역에서 일한 뒤, 은퇴 후 생활비가 낮은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에서 은퇴자가 꼭 생활비가 저렴한 주로만 향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자협회(AARP)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목적지는 의외로 생활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매사추세츠였다. 그 외에 플로리다, 일리노이, 켄터키 등이 상위권에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세금이나 집값만으로 은퇴지를 선택하기보다는 의료·가족·기후·생활 인프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훈식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버크 타운홈 \$565,000
방3 / 화3.5 / 퍼킹2
부엌, Bath 등 전체 수리한 집
Walk-out, 펜스, 덱 & 페인트

비엔나 콘도 \$325,000
방1 / 화1+Den, 굿로케이션
전체마루, 넓은 데크
가스, 물 포함한 저렴한 관리비

매너스 콘도 \$200,000
방1 / 화1
쇼핑몰 근처
New Water Heater & Appliances

COMING SOON
센터빌 타운 \$600,000
방/화2.5, 차고1

페어팩스 싱글홈 \$980,000
방4, 화3.5, 차고2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 드리겠습니다.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HopeSpring 아동 가족 상담소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테이션,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구인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 보험 취급

페어팩스시티 도서관 맞은편
3915 Blenheim Blvd, STE 23A, Fairfax, VA 22203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일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703-259-5617, 410-241-2520

낙관 국면엔 보존·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

금융 시장 구조적 불균형과 고용 선행 지표 하락 징후

2026년 초 현재,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 증시는 표면적으로 견고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DJIA)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인공지능(AI) 관련 산업의 수익성 개선과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결합된 결과로 분석된다. 다수의 금융 리서치 기관은 인플레이션의 하향 안정화와 금리 정상화 과정이 맞물리며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수의 상승세가 시장 전체의 건강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증시의 가치 평가(Valuation)는 과거 역사적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특히 주가매출비율(P/S Ratio) 등 주요 지표들은 하락장 직전의 192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의 고점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기업의 실제 매출이나 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과도하게 선반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그만큼 시장이 작은 하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 시장 내부 지표의 괴리와 상승 동력의 약화

시장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상승-하락 종목 수(Market Breadth)'를 살펴보면 지수와 실제 종목들 사이의 괴리가 선명하게 나타난다. 지수는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격이 오르는 종목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소수의 대형 우량주가 지수 전체를 견인하고 있을 뿐 대다수 기업의 주가는 이미 하락세에 진입했거나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을 '내부적 분산(Internal Divergence)'이라고 하며, 대개 거대한 하락 추세가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관찰된다. 모멘텀 지표인 상대강도지수(RSI) 역시 지수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시장에 유입되는 매수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음을 뜻하며, 상승 추세의 지속 가능성성이 낮아지



내부 지표 괴리와 상승세가 완만해지거나 하락할 때에는 근거리보다는 원거리의 객관적 선행 지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지수 상승 이면
역사적 고평가와 구조적 취약성 누적
시장지수와 개별 종목 흐름 사이 괴리
재조정 시기... 객관적 수치에 집중해야
”

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술적 증거로 읽힌다. 일반 투자자들은 지수의 수치에 집중하기보다 전체 종목의 흐름이 지수와 동행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다.

▶ 고용 시장 선행 지표의 급격한 냉각
실물 경제 측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데이터는 고용 시장의 변화다. 일반적인 실업률 지표는 경기 상황에 후행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의 낮은 실업률을 근거로 미래를 낙관하는 것은 통계적 오류를 범할 위험이 있다. 보다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기업의 채용 의사가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선행 지표를 분석해야 한다.

현재 미국 고용 시장의 선행 지표인 '임시직 고용(Temporary Help Services)'은 2022년 3월 점집 이후 약 22.2% 감소했다. 기업은 경기둔화를 예상할 때 정규직 해고에 앞서 임시직 계약을 먼저 종료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주요 구인 플랫폼의 채용 공고 지수(Indeed Job Postings)는 같은 기간 대비 35.1% 하락하며 가파른 하방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기업들이 이미 신규 채용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 2001년과 2008년의 경기 침체 사례를 보면 이러한 선행 지표의 급락 이후 일정 시차를 두고 공식적인 실업률 상승과 경기 후퇴가 발생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투자자 심리와 시장 참여자의 비중 분포

심리적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낙관론은 통계적 임계치에 도달해 있다. 설문조사와 자금 흐름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 비중은 과거의 역사적 고점 수준에 근접했다. 이는 시장에 새로 진입하여 주가를 추가로 끌어올릴 수 있

는 대기 자금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반면, 시장 하락에 대비하는 보험 성격의 파생상품 거래 비중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져 있다.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참여자가 한 방향(상승)으로 쏠려 있는 구조는 변동성 확대 시 패닉 셀링(Panic Selling)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대중의 확신이 최고조에 달하고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무시될 때 시장의 반전이 일어났던 과거 사례들을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 자본 보존을 위한 포트폴리오 재조정 전략

위와 같은 구조적 리스크가 실존하는 상황에서 투자자에게 권고되는 최우선 과제는 수익 창출이 아닌 '자본의 보존'이다. 주식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고 고용 선행 지표가 무너지고 있는 시점에서는 공격적인 투자 비중을 낮추고 자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현금성 자산의 보유 비중을 늘리는 것은 단순히 투자를 쉬는 것이 아니라 자산 가격의 재조정이 일어날 때 유동성을 확보하여 낮은 가격에 우량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는 행

위다. 또한 금리 변동과 경제 둔화 시기에 방어적 성격을 띠는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여 하락 변동성에 노출되는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의 시장은 통계적, 경제적 관점에서 기대 수익률보다 잠재적 손실 위험이 훨씬 큰 구간에 진입해 있다고 판단된다.

▶ 통계적 신호에 기반한 냉정한 대응

금융 시장의 역사는 가격이 본질적인 가치에서 과도하게 멀어질 때 반드시 재조정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의 지수 신고가는 AI라는 특정 산업의 성장성이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그 이면의 고용 지표와 시장 내부에 너지되는 이미 하락 신호를 보내고 있다.

투자자는 장밋빛 전망에 근거한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수치와 선행 지표가 가리키는 방향을 직시해야 한다. 고용 시장의 냉각이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시장 내부의 종목 이탈이 지수 하락으로 연결되는 시점은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상승 흐름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기보다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자산을 보호하고 다음을 시장의 재편 과정을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肯 최아피스 자산관리 대표

① 위성판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 신문! 중앙일보

★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

★ 갤럭시부동산 ★

★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일년에 80~100여 주재원 렌트 구해 줌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28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탕감
전문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돋웁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정승우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연방항소법원이 교회는 신념을 공유하는 신자만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교회의 예배 모습.

종교단체, 신자만 직원 채용 가능

워싱턴주 차별금지법에
연방항소법원 예외 판결
가주에도 동일하게 적용

종교 단체는 신앙을 공유하는 신자만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
왔다.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6일 위
싱턴주가 유니온 가스펠 미션에 대해
차별금지법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고 판결했다. 법원은 해당 주법의 적용
이 종교 단체의 신앙과 사명에 대한 내
부 결정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의 관할 지역
에는 워싱턴주뿐만 아니라 가주와 오
리건 등 9개를 포함하고 있어 이번 판
결은 가주 교회에도 동일한 법적 기준
으로 적용된다.

유니온 가스펠 미션은 2023년 워싱
턴주가 차별금지법을 적용하지 못하도
록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별
금지법이 기독교적 세계관에 동의하는
직원만을 채용하려는 미션의 능력을
저해한다고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성

직자 예외'로 불리는 원칙에 따르면 사
연자 채용에서 종교 단체는 차별금지
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유니
온 가스펠 미션은 소송을 통해 성직자
뿐 아니라 직원까지 포함해 신앙 준수
를 요구할 수 있도록 더 꼭넓은 보호를
요청했다.

항소법원은 법원이 인정해 온 교회
자율성 원칙이 교회의 신앙과 사명 자
체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결정에 대한
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성
직자가 아닌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도 채용 결정이 진정성 있게 유지되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다면 종교 기관
이 교회 자율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고 판단했다.

법원은 유니온 가스펠 미션의 채용
정책이 법의 보호를 받는 내부 경영 결
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주 정부가
차별금지 정책을 집행할 경우 종교적
사명을 방해하고 공적 영역에서 종교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덧붙
였다.

미션의 법적 대리 단체인 '자유수호
연맹'의 제러마이아 갤러스 변호사는

법원이 수정헌법 제1조가 동일한 소명
을 공유하는 신자를 고용할 자유를 보
호한다는 점을 정확히 판시했다고 평
가했다. 그는 종교 단체가 헌법이 보호
하는 신앙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
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갤러스 변호사는 성직자 예외가 비
교적 평범한 법 원칙이지만 워싱턴주
대법원이 과거에 이를 좀처럼 해석하면
서 그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
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수정헌법
제1조가 종교 단체의 이러한 운영 방식
을 허용한다고 인정한 첫 항소심 결정
이라고 강조했다.

미션은 소송을 제기하자 워싱턴주
는 차별금지법을 실제로 집행한 적이
없어 사건성이 없고 차별금지법의 합
헌성을 주장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6일 항소법원도 주법 적용을 차단한 하
급심 판결을 유지함에 따라 워싱턴주
가 상고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에 대해 연방 대법원은 지금까지 성직
자 예외를 꼭넓게 인정했기 때문에 상
고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다.

안유희 객원기자

가톨릭 '교황과 함께 기도' 캠페인

기도 중심 전 세계 교회 하나로

교황 레오 14세(사진)가 새해를 맞아
새로운 기도 프로젝트인 '교황과 함께
기도하기'를 공식 지지하고 전 세계 교
회를 향해 매달 교황이 제시하는 기도
주제에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 달라고
강조했다.

'교황과 함께 기도하기'는 '교황 비
디오'로 알려졌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프로젝트를 새롭게 개편한 것으로 교
법과 함께 제시된 1월의 교황 기도 지

황의 매일 기도를 중심으로 전 세계 교
회를 하나로 묶는 것을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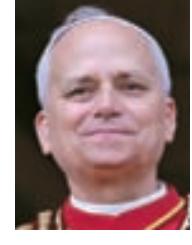
'교황 세계 기도 네트워크'의 크리
스토발 포네스 국제 책임자는 이번 새

형식이 신자들이 교황을 더 깊이 지지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
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는 어디에 있
든 누구나 교황이 매달 제시하는 기도

지향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한
다"고 설명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출

향은 그리스도를 만
나는 특별한 장소로
서 성경을 다시 발견
하고 영적인 힘을 새
롭게 인식하자는 내
용이라고 교황청은 밝혔다.

교황 레오 14세는 첫 영상 메시지에
서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말씀과 함께
자주 기도할 것을 강조했다. 교황은 성
경에 담긴 하느님의 말씀이 "지침 속에
서는 양식이 되고 어둠 속에서는 희망
이 되며 공동체 안에서는 힘이 된다"고
말했다.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퀘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사업체·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 / 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자이언트
No. 1
에이전트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밍
구합니다.



443-759-9798

사람은 저마다의 구원 방식 찾아야

박검진의 종교·철학 여행

프로이트의 리비도 경제

모두의 행복 황금률 없어

내게 맞게 세계 바꿀 힘을

얼마나 소유했냐의 문제

프로이트에 따르면, '행복'은 개인
리비도의 경제학적 문제라고 한다.
즉,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황금
률은 없으며, 모든 사람은 각자 그
가 구원받는 개별적인 방식을 찾아
야만 한다고 했다. 프레데릭 2세는
"나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
신의 방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했다.

프로이트는 이 구절을 인용했다
고 한다. 각기 다른 여러 요인이 그
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

면서, 그 요인들은 그가 외부 세계
로부터 침된 만족을 얼마나 많이 얻
게 되며, 그가 외부 세계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인가, 종국에는 자신의 소망에
부합하도록 세계를 바꿀 힘을 그 자신이 얼마나 소유하고 있다

고 느끼는가의 문제라고 했다.

프레데릭 2세가 베를린에 있는
감옥을 방문했을 때 일이다. 죄수

들은 모두 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오직 한 사람만이 죄가 있다고 하면

서 짓값을 치르겠다고 하자, 왕은
교도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 죄
수를 당장 풀어줘라. 저 죄수가 이
감옥에 있는 죄 없는 사람들은 물들
이지 못하도록 말일세."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
라는 작품에서 주인공 '한스'는 신
학교에 갈 수 있는 주 시험에 2등으
로 합격한다. 그러나 신학교에서 외
로움의 시간을 보내다가 '하일너'
라는 친구를 만나게 된다. 하일너는
선생님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가르
침을 우습게 알고, 수업도 등한시하
고, 제멋대로 시를 쓰면서 전통과
관습을 비웃는다.

이런 하일너에 대해서 한스는 두
려워하면서도 그의 예술적 감수성
에 매료된다. 모두가 하일너를 따돌
릴 때, 오로지 한스만이 그의 천재
적 재능을 알아본다.

천하의 모범생 한스와 골칫덩이
문제야 하일너의 만남에 선생님들
은 기겁한다. 한스가 내향적인 천재
였다면, 하일너는 외향적인 천재였
다면, 하일너는 외향적인 천재였

다. 학교의 급우들은 이 둘을 따돌
렸다.

한스에게는 하일너만이 유일한
안식처였다. 한스는 한 가지 일밖에
집중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
었다. 친구를 사귀면 학교 공부를
등한시하는 것이다. 욕망의 균형감
각을 찾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열
정을 친구 하일너에 쏟아내 버리는
것도 미성숙의 증거였다. 그러나 계
산하지 않고 순간순간 용솟음쳐 흐
르는 '리비도'를 아낌없이 쏟아버
리는 것은 순수한 짓음의 증거이기
도 했다.

하일너에 내면의 황금을 모두 맡
겨버린 채, 하일너가 이끄는 대로
방탕한 생활에 몸을 맡겨버린 것이
어리숙한 한스가 저지른 최악의 실
수였다. 하일너와 함께하면서 학업
성적이 나빠지자,

한스는 신경쇠약에 빠진다. 교장
선생님은 한스에게 성적이 나쁘면
수레바퀴에 깔려서 죽는다고 훈계
한다. 훗날, 한스는 요양 차 학교를
그만두고, 기계공이 되지만 옛 고향
친구들로부터 비아냥거림을 받는다.

아무튼, 갖은 비행을 일삼던 하
일너가 급기야 퇴학당하자, 한스는
곧 무너져 내린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일너의 편지를 기다리지만 끝내
하일너는 한스를 찾지 않는다.

한스는 우정이 산산조각이 나버
리자 어디서도 의지할 공간을 찾지
못한다. 한스는 하일너와의 만남이
지금까지 놓쳤던 모든 것을 보상해
주는 보물로 여겼다. 그러나 결국,
한스는 자살하게 된다.

위의 사례에서 리비도(욕망)와
이해관계(interest)를 살펴보자. 한
스는 자신의 욕망을 하일너에 맡겼
다. 마치 자신을 대변해 줄 것 같은
믿음에서였다. 하일너는 어차피 외
로운 처지에서 순진한 친구라도 있
으면 손해 볼 것이 없었다. 서로 간
의 이해관계는 시작부터 어긋난 것
이다.

한스는 이해관계를 따질 만큼 성
숙하지 못했고, 너무도 순진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다. 친구로
사귄 관계지만 결과는 너무도 엄청
난 차이가 있다. 이것을 경제로 바
꿔서 생각하면 한스는 너무도 밀지
는 장사를 한 것이다. 개인 리비도
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했다. 즉, 자
신의 에너지를 하루하루 소모한 것
이다.

악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비키리 부동산, MD남 성분 검사 스팩터 면허 획득.

1978년 이전집들 LEAD 문제로 인해 소송당하는 일 없도록 도와 드립니다.

이런분들은 꼭 비키리 부동산에 전화 주세요.

셀러

- 집 고쳐서 팔까? 아님 AS-IS로 팔까? 고민되시는 분 전화 주세요.
- 집 팔기전에 고치고 싶은 분들, 큰 돈들이지 않고 집수리 깔끔하게 하여 확실히 팔아 드립니다. 고친 비용은 이자없이 크로징에서 내셔도 됩니다.

바이어

투자용 주택 사시거나, 처음 집 사시는 분들은 영뚱한 집 사서 후회 하지 마시고 꼭 비키리 부동산과 상담해 주세요. 자산 증식이 될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임대 주택

확실한 세입자 찾아드립니다.

임대주택 관리-매릴랜드, 디씨 임대 면허 관리 해 드립니다.

RENT

콘도, 알렉산드리아 \$1,750
방1, 화1, 주차 2, 모든 관리비 포함

싱글홈, 포토맥 \$4,000
방3, 화2

타운홈, 센터빌 \$3,300
방3, 화3.5, 주차 2, 즉시 입주

타운홈, 페어팩스 \$3,600
방3, 화3.5, 주차 2, 2월초 입주

타운홈, 센터빌
방4, 화3.5, 주차 2,
즉시 입주

\$3,500

급매



메릴랜드 싱글홈
랜햄, 방4, 화3.5, 차고 2,
지하 올수리, 넓게 확장한 거실,
업그레이드, 1991년
\$700,000

힘든 세입자나, 밀린 랜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매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부동산 가이드



лекс 유
Newmark Korea
Advisory Group 대표

꼭 줄이는 트렌드만 있는 것 아냐 필요 따라 새 균형점으로 이동 중

최근 발표된 미국 고용 및 금리 관련 지표는 미국 오피스 시장의 방향성을 비교적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11월 미국 고용은 소폭 증가했지만, 실업률은 4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하며 노동시장이 서서히 냉각 국면에 들어섰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는 경기 붕괴가 아닌 '속도 조절'에 가깝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업들이 대규모

해고를 단행하지도, 공격적으로 채용을 늘리지도 않는 이른바 '저채용·저해고(low-hire, low-fire)' 기조가 뚜렷해졌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인력 확충 대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 증가가 오피스 수요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는 최근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금리 인하가 일부 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은 사실이나, 기업들이 이를 계기로 대규모 이전이나 확장을 결정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임차인들은

현재 사용 중인 공간에 만족할 경우

계약 갱신을 우선시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피스 시장 전반이 위축 국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주요 도시의 대형 임대 사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좋은 오피스'에 대한 선택적 수요가 분명히 존재한다.

글로벌 금융사, 비테크, 성장 기업들은 직원 유치와 출근 유도를 위해 입지와 품질, 편의시설을 갖춘 클래스 A 및 트로피급 오피스를 선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반면 비용 절감이 핵심인 기업들은 면적을 줄이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딩으로 이동하는 양극화 현상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2026년을 바라보는 미국 오피스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대규모 확장'이 아닌 '선택과 집중'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를 마냥 기다리기보다, 현재 시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전략적으로 고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특히 트로피 오피스의 경우, 향후 수요 회복 시 임대료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오피스 시장은 느리지만 분명히 새로운 균형점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 지금은 방향성을 읽고, 움직일 때와 지켜볼 때를 구분해야 할 시점이다.

부동산 이야기



제니스 박
콜드웰뱅커 베스트부동산

가격 급락 피하는 '대기 상태' 유지 바이어들 구입 나서는 움직임 역력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지난 2~3년간의 시장을 직접 경험한 소비자라면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최근 몇 년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2022년 이후 이어진 급격한 금리 인상은 주택 시장을 냉각시켰다. 주택 구입 비용이 단기간에 오르며 바이어의 구매력은 위축되었다. 셀러 역시 낮은 기준 모기지 이자율을 포기하기 어려워 매물을 거둬들이는 선택을 했다.

그 결과 시장은 가격이 급락하기보

다 거래 자체가 줄어든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CAR(캘리포니아 부동산협회)과 NAR(전미부동산협회)은 이 시기를 하락장이 아닌 대기 상태의 시장으로 분석한다.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금리와 정책, 경제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움직임을 멈춘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Realtor.com과 Zillow 역시 2026년을 급격한 반등보다는 점진적인 안정과 회복의 해로 전망한다.

2026년을 바라보는 시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매물의 변화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매물은 새해에 들어서며 흐름이 살아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금리 변화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그동안 미뤄왔던 개인적 결정들이 더 이상 연기 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은퇴를 앞둔 세대의 다운사이징 수요가 있다. 상속이나 가족 구조 변화로 인해 주택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장기로 보유해 온 투자 부동산을 정리하려는 오너들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자연스러운 매물 공급을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 시장에서 의미 있게 거론되는 또 하나의 이슈가 있다. 주거용 부동산의 Capital Gain Tax 상향 가능성이다. 현재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는 부부 50만 달러, 싱글 25만 달러이다. 부부 100만 달러, 싱글 5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아직 법적으로 확정된 정책은 아니나 나이 가능성만으로도 셀러들의 심리에는 변화가 있다. 언젠가 매도를 고려해야 한다면 구조를 점검해보자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장기 보유 주택이나 투자용 부동산을 가진 오너들에게는 현실적인 고민이 되고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도 이전과 다르다. 기다리겠다는

바이어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셀러 역시 막연한 기대보다는 전략적인 가격 설정과 타이밍을 고민하고 있다. 시장이 서서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다.

2026년 부동산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폭등이나 폭락이 아닌 정상화이다. 과열된 오피스 경쟁은 많지 않다. 비이성적인 가격 상승도 보기 어렵다. 준비된 바이어와 현실적인 셀러가 만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타이밍 보다 준비가 중요하다. 재정 상태를 점검과 향후 거주 계획과

세금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단기적인 뉴스보다 중장기적인 전략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2026년은 쉬운 시장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멈춰 있던 시장이 다시 숨을 고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은행 대출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말은 과장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기업 금융 현장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규제와 절차에 묶인 은행이 대출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사이, 사모 크레딧(private credit)이 새로운 자금 공급원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사모 크레딧은 기업이 은행이나 증권시장을 거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거래가 공개되지 않고, 기업 여건에 맞춰 대출 조건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시장의 성장 속도는 이미 무시하기 어렵다. 글로벌 사모 크레딧 시장 규모는 약 2조 달러에 이르며, 불과 10여 년 만에 몇 배로 커졌다. 매킨지에 따르면 잠재 시장은 30조 달러에 이른다. 금

성장 비결은 무엇일까. 투자를 기다리는 기업과 프로젝트는 많지만, 이를 뒷받침할 유연한 대출 통로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 간극이 사모 크레딧의 성장 여지를 키우고 있다.

급성장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부실이 쌓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장의 흐름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연체와 부실은 불가피하지만,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많다. 경쟁력 있는 운용 사일수록 대출 초기부터 담보와 구조

를 보수적으로 설계하고, 위기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기업에만 자금을 공급한다.

사모 크레딧의 강점은 맞춤형 금융

에 있다. 은행 대출이 정해진 틀을 따르

활동이 늘어나면 대출 수요는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사모 크레딧이 기존 금융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는 은행 대출이나 공모 채권이 채우지 못하는 공백을 메우는 보완재에 가깝다.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와 유연하고 확실한 자금을 원하는 기업의 이해가 만나는 지점에서 이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

다만 모든 운용사가 같은 역량을 갖춘 것은 아니다. 투자자라면 성장성보다 운용 원칙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먼저 살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사모 크레딧은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높여주는 자산군이 될 수 있다. 블랙스톤 크레딧 및 보험 부문 글로벌 CIO

마이클 자와즈키의 마켓나우

은행 빙자리 파고든 '2조 달러' 사모 크레딧



를 보수적으로 설계하고, 위기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기업에만 자금을 공급한다.

사모 크레딧의 강점은 맞춤형 금융

에 있다. 사모 크레딧은 기업의 사업 구조와 현금 흐름에 맞춰 조건을 조정한다. 자금 집행 속도가 빠르고, 거래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점도 기업에는 매력이다. 투자자에게는 주식보다 변동성이 낮으면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한다.

금리 환경이 바뀌어도 이 흐름은 쉽게 깨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금리 인하는 표면적인 수익률을 낮출 수 있지만, 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여 재무 안정성을 높인다. 동시에 인수합병과 투자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추천 투례 리스팅

집매매, 렌트 놓으실 때
(자체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Realty Maryland

리얼티 원 부동산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y Maryland

Realty

Realty</



Hello, Jeju

 JAN. 16th
- JAN. 29th,
2026

Welcome to special savings from
Korea's most cherished island!

청정 제주가 품은 다채로운 맛, 지금 특가로 만나보세요!



Live
Jeju Flounder
제주 활광어

\$21.99
LB

JEJUWELLING
Sea Urchin
Abalone
Seaweed
Soup
제주웰링
성게전복
미역국
14.1 OZ



\$10.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VIRGINIA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GAI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ELI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ICOTT CITY, MD 21043





손흥민 훈련 돌입 MLS 내달 개막

LAFC 2월 21일 홈에서 개막전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와 경기

메이저리그사커(MLS) LAFC의 손흥민이 새 시즌 준비를 위한 팀 훈련에 돌입했다. LAFC가 구단 SNS를 통해 훈련 시작을 알린 가운데, 손흥민도 훈련에 가세했다.

미국 입성 전까지 유럽에서만 뛰며 여름에 프리시즌을 치러온 손흥민이 겨울에 맞이하는 첫 프리시즌이다. 손흥민의 LAFC는 다음 달 개막을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5차례에 걸쳐 연습경기를 치른다. 리그 개막전은 오는 2월 21일 '디펜딩 챔피언' 인터 마이애미와의 홈경기로, 손흥민과 리오넬 메시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안병훈 LIV 골프로 옮길 듯

PGA서 229개 대회 출전
우승 없는 선수 상금 1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한 안병훈(사진)이 2026시즌 LIV 골프로 활동 무대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LIV 골프가 12일 기존 아이언 헤즈(Iron Heads) 팀의 명칭을 코리안 골프 클럽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안병훈과 송영한, 김민규가 2026시즌 LIV 골프에서 뛰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이 선수들의 전·현 후원사 및 LIV 골프로 옮기면 현재 후원사인 CJ 그룹과 관계 재설정이 불가피할 전망

2026시즌 LIV 골프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한·중 탁구 스타'인 안재형, 자오즈민 부부의 아들인 안병훈은 PGA



투어 229개 대회에 출전해 우승은 못 했고, 통산 상금 2153만5424달러를 벌어 우승 없는 선수 가운데 상금 1위에 올라 있다.

DP 월드투어 통산 2승의 안병훈이 LIV 골프로 옮기면 현재 후원사인 CJ 그룹과 관계 재설정이 불가피할 전망

이다.

2027시즌까지 계약한 안병훈은 LIV 골프로 이적할 경우 PGA 투어 더 CJ컵 바이런 넬슨에 출전할 수 없고, 팀 모자와 골프 의류를 착용해야 하는 LIV 골프 특성상 후원사로고 노출도 어려워진다.

안병훈은 CJ그룹 측에 'LIV 골프 이적을 검토 중'이라고까지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LIV 골프 이적 최종 확정 직전 단계까지 간 것으로 보인다.

일본프로골프 투어(JGTO)에서 통산 2승을 거둔 송영한과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3승의 김민규의 LIV 골

프 이적은 확정됐다.

송영한은 지난해 4월 LIV 골프 마이애미, 김민규는 작년 5월 LIV 골프 한국 대회에 각각 대체 선수로 출전했다.

2025년 말로 신한금융그룹과 후원 계약이 만료된 송영한은 계약 연장 논의 과정에서 이미 신한금융그룹 측에 'LIV 골프행'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월 종근당과 후원 계약을 체결한 김민규의 매니지먼트 회사 웅빈 매니지먼트그룹 윤주식 본부장은 "김

민규 선수는 2026시즌 LIV 골프와 일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KPGA 투어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캡카 LIV서 PGA로 복귀

보너스 박탈 등 가벼운 징계
29일 개막 파머스 오픈 출전



29일 개막하는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에서 복귀전을 치를 예정이다.

LIV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PGA 투어에 '메이저 사냥꾼' 캡카는 전세를 반전할 강력한 카드다. LIV의 얼굴 중 하나였던 그를 다시 데려오는 것은 PGA 투어의 상징적 인 승리다. LIV로선 핵심 전력 이탈에 따른 심리적 타격과 리그 와해의 위기감을 동시에 느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어 내부에서는 여전히 "돈을

쫓아 떠났던 배신자들을 그냥 받아줄 수 없다"는 반발이 거세다. PGA 투어는 이를 의식해 캡카에게 징계를 내렸다. 향후 5년간 투어 지분 및 보너스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6년 페덱스컵 보너스 중단과 500만 달러의 자선 기부금 납부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다. 2022년 LIV 이적 당시 1억 5000만 달러 이상의 계약금을 챙겼던 캡카에게,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 보너스 박탈은 별 타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캡카는 거액의 이적료를 챙긴 뒤 큰 실질적 손해 없이 친정으로 복귀 했다.

하는 '사실상의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PGA 투어의 의도는 이번 프로그램의 '선별적 조건'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대상자를 2022년부터 2025년 사이 메이저 대회나 플레이어스 우승자로 한정했는데, 현재 이 조건을 충족하는 선수는 브룩스 캡카, 브라이언 디섐보, 존 램, 캐럴 스미스 등 단 4명뿐이다.

LIV의 핵심 전력만 쏙 빼와 리그를 고립시키겠다는 뜻이다. 투어는 나머지 3인에게도 2월 2일까지 복귀 여부를 결정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브라이언 롤랩 PGA 투어 CEO는 "이번이 한시적인 유일한 기회이며, 문이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 했다.

성호준 골프전문기자

어깨 부상 클로이 김
“2월 동계올림픽 출전”

남가주 출신의 유명 한인 스노보드 선수인 클로이 김이 미국 대표로 2월 개막하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출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클로이 김은 13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올림픽 직전까지 스노보드를 탈 수 없다는 점이 아쉽지만 그래도 올림픽에는 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초 스위스에서 연습 도중 어깨를 다쳤고, 올림픽 출전 여부는 정밀 진단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클로이 김은 이날 소셜 미디어에 올린 영상을 통해 "어깨 관절과 순이 파열됐다"고 진단 결과를 설명했다.

클로이 김은 2018년 평창,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연달아 금메달을 따냈다. 그가 올해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도 우승하면 스노보드 종목 사상 최초로 올림픽 3회 연속 우승 금자탑을 쌓는다.

올해 동계 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는 클로이 김과 한국의 최가온이 우승을 놓고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LA레이커스 3연패

남가주 출신의 유명 한인 스노보드 선수인 클로이 김이 미국 대표로 2월 개막하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출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클로이 김은 13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올림픽 직전까지 스노보드를 탈 수 없다는 점이 아쉽지만 그래도 올림픽에는 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초 스위스에서 연습 도중 어깨를 다쳤고, 올림픽 출전 여부는 정밀 진단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클로이 김은 이날 소셜 미디어에 올린 영상을 통해 "어깨 관절과 순이 파열됐다"고 진단 결과를 설명했다.

클로이 김은 2018년 평창,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연달아 금메달을 따냈다. 그가 올해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도 우승하면 스노보드 종목 사상 최초로 올림픽 3회 연속 우승 금자탑을 쌓는다. 여자 하프파이프에서는 클로이 김과 한국의 최가온이 우승을 놓고 다투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광고비는 쓰는데,
매출은 그대로인가요?”**

구글에서 안 보이면, 고객은 오지 않습니다.

- 구글 검색 & 지도에서 고객이 먼저 찾게 만들고
- 광고비 낭비 없이 실제 문의와 방문으로 연결하고
- 매출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흐름을 만듭니다.

intelisystems
Think eMarketing

“2주 안에 새고객과 매출 향상을 경험을 하세요!”



구글 지도 랭킹,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광고,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소셜미디어, 유튜브 광고,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웹사이트 제작

지금 연락주세요! – 무료로 웹마케팅 전략
(시운도자 한정)

571-506-0220

sales.intelisystems.com/k1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Chad: How are you doing Jason?

채드: 제이슨 어떻게 지내?

Jason: Chad what are you doing out so late?

제이슨: 채드 이렇게 늦게 밖에서 뭐해?

Chad: I had it out with my wife so I had to leave the house.

채드: 아내하고 한 바탕 해서 집을 나왔어.

Jason: That's not your style. What's the problem?

제이슨: 그거 너답지 않다. 무슨 문제 있어?

Chad: I had to do something before she goes through all of our money.

채드: 아내가 우리 집 돈을 다 써버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됐거든.

Jason: So she's out of control huh?

제이슨: 그러니까 아내가 통제불능이다 그거네?

Chad: Yeah but I really don't like doing it.

채드: 응. 하지만 그러기 정말 싫어.

Jason: I hope it helps.

제이슨: 그렇게 한 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Chad: Me too. It's really the only thing we disagree about.

채드: 나도 그래. 그것만 빼고는 부딪치는 게 정말 하나도 없거든.

Jason: You're lucky if that's your only problem.

제이슨: 그 문제 밖에 없다면 넌 운이 좋다.

기억할만한 표현

▶ have it out with (someone): (누구와) 말다툼하다. 싸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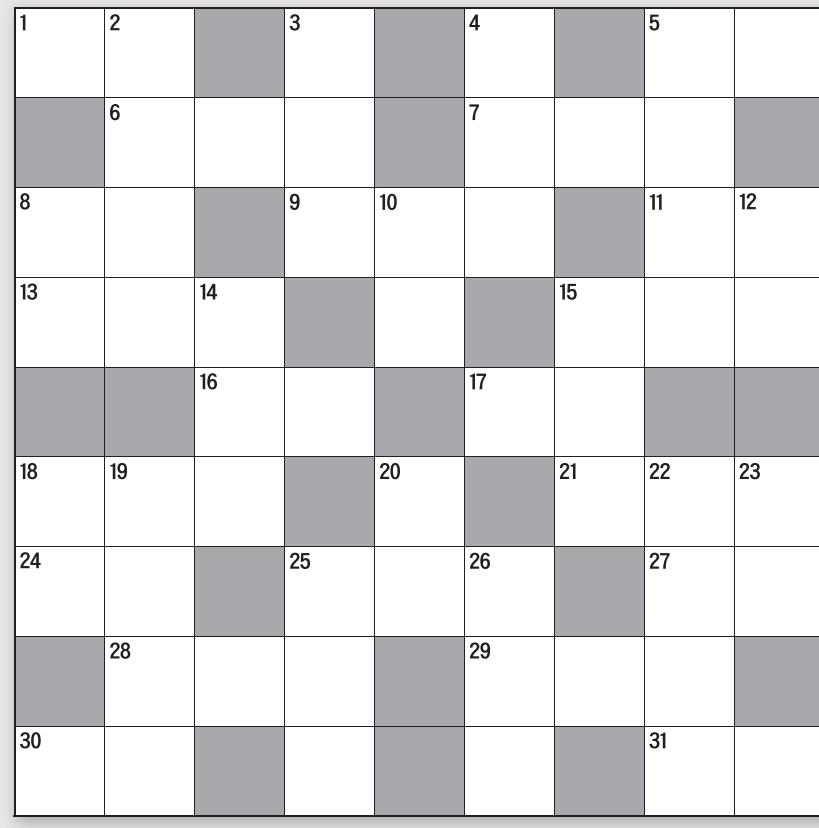
"I'm going to have it out with my boss if I don't get a raise."

(월급 안 오르면 상사한테 따질 거야.)

▶ go through (something): (무엇을) 다 써버리다.

"My son and his friends went through all of our food last weekend." (우리 아들이 친구들하고 지난 주말에 집 안의 음식을 다 먹어 치웠어.)

날마다 퀴즈



가로열쇠

(1) 늙어진 뒤, ~ 대책 (5) 순수 밥을 지어 먹으면서 생활함 (6) 편안히 쉴 수 있는 곳. 아늑하고 고요한 뒷산 산책로는 나에게 유일한 ~이다 (7) 달 언저리에 둥그렇게 생기는 구름 같은 허연 테 (8) 타이어, 지우개의 원료. 나무의 수액으로 전 세계 산출량의 95% 이상을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가 차지하고 있다 (9) 나뭇가지의 갈라진 부분 (11) 자비심으로 남에게 재물이나 불법을 베풀다 (13) 바다의 수평선에서 석양을 받아 번득거리는 빛. 물결불결한 노을 (15) 여러 사람의 말을 좋지 않게 전하여 이간질함 (16) 무섭거나 징그러울 때 살갗에 쫌쌀 같은 것이 도톨도톨하게 돋죠 (17) 일을 하다가 잠깐 쉬면서 먹는 음식 (18) 고등어의 새끼 (21) 야구에서 주자의 도루 방지를 위해 던지는 공 (24) 쌀을 이는 데에 쓰는 기구 (25) 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서리 (27) 올바른 이치나 도리에서 어그러짐. ~ 척결 (28) 동물이나 사람의 형상을 한 잡된 귀신 (29) 3년과 같이 길게 느껴짐. 몹시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 (30) 땅을 지어 남의 과일, 가축 따위를 흡족 먹던 장난 (31) 선물을 끓는 끈

세로열쇠

(2) 낯가죽이 두꺼워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를 때 생활함 (3)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4) 총각이 죽어서 된 귀신 (5) 병이 들어서 자리를 깔고 몸져누울. 할아버지의 바람을 맞고 쓰러져 ~을 하고 계시다 (8) 알록달록하게 곱게 만든 아이의 옷. ~ 옷 입고 할머니께 세배 가지 (10) 확신을 가지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함. 호언 ~ (12) 승려에게 혹은 절에 돈이나 음식 따위를 보시하는 일 (14) 젖먹이가 누워 놀면서 입으로 내는 소리 (15) 다른 사람의 말하는 데 끼어들어 말하는 짓 (18)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인 증조 (19) 어린아이가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동작 (20) 차량을 넣어 두는 곳 (22) 소의 안심에 불은 고기. 갈비를 이루는 부분으로는 안창살, ~, 토시살 등이 있는데, 이중 ~는 소의 갈비 안쪽 흉추의 몸통을 따라 길게 불어 있는 띠 모양의 근육살이다 (23) 붉은색을 띤 금속 원소. 전기와 열의 전도성이 뛰어나다. 원자 기호는 Cu (25) 병원이나 가정에 늘 준비해 두는 약품 (26) 다섯이나 여섯쯤 되는 수. 그는 사과 ~ 개쯤은 한자리에서 먹어 치운다

스도쿠



자료제공=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2주 \$20, 월 \$3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Eng)	한글(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EXP. DATE: / month year CVS: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w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wpk., #310, Annandale, VA 22003

A wide horizontal banner for 'Korean Health Town'. It features a red ribbon logo with the text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카•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카 VA 공식딜러' (Bodyfriend • Panasonic • INADA • Kuhn • Osaka • Oresto • Waranty-free American products from Kowna/Osaka VA official dealer). The banner also includes the phone number 703-354-1515, address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and another location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It features a cartoon character in traditional Korean clothing, a red ribbon, and a green background with traditional Korean characters.

CERAGEM V7

2023년 3월 출시한 신제품 기획

스파언 스판

서울교대 복지관 청년동아 국제연수
개수: 500명, 운동비: 100만 원

체-이체 히든센서 미사지

체조장비로 체조 마이션 영역으로 적용
내부 경우에 이동 부위를 선택, 자동화가
연락 미사지를 제공합니다.

온열 케어

포고 베이스라인 V7 기관 청진과 도움
되는 고장을 풀어주고 혼자서 훌륭한
방법입니다.

최대 마사지 힘: 침종 운동

체육교사의 철학: 체육 기관은 체육을 통해
健康的한 체육을 제공하는 체육교사입니다. 100% 체육교
사만이 철학입니다.

미국 FDA 인증 2등급 의료기기 ■

온열 치료와 스트레스 관리

온열 치료와 스트레스 관리

근육통 완화

당신의 공간을 풍성하게 완성하세요

국내 최초로 디자인과 기능성이 고루한 2023년 신제품 출시 기념
상당수 할인과 함께 아울렛으로 출시됩니다.

제작하고 판매하는 회사

@ceragemsouthkorea

Ceragems USA

www.ceragemsusa.com

풀무원 김치 냉장고 런칭 기념 세일!

내 공간에 박 맞는 김치냉장고
바른 거리를 담는 바른 솔루션

풀무원 김치냉장고 120L

PULMUONE KIMCHI FRIDGE 120L

SPECIAL
OFFER

\$1,399

\$999

A photograph of a brown rectangular electronic mat on a light-colored wooden floor. The mat is positioned in front of a white sofa. The background is slightly blurred, showing a living room setting. The mat has a small digital display and control buttons on its right side.



jglconstruction.com

8,000sf의 완벽한 휴식처,
각종행사, 가족,
교회 단체 모임
센터빌에서 40분
전화예약 703-485-5483
(138 Wooded Lane,
Front Royal, VA)

창문
WINDOW
SPECIAL

JGL 건설회사

JGL 건설회사는 VA/MD/DC 컨트렉터 클래스 A 라이센스 및
시공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실내공사
INTERIOR

실외공사
EXTER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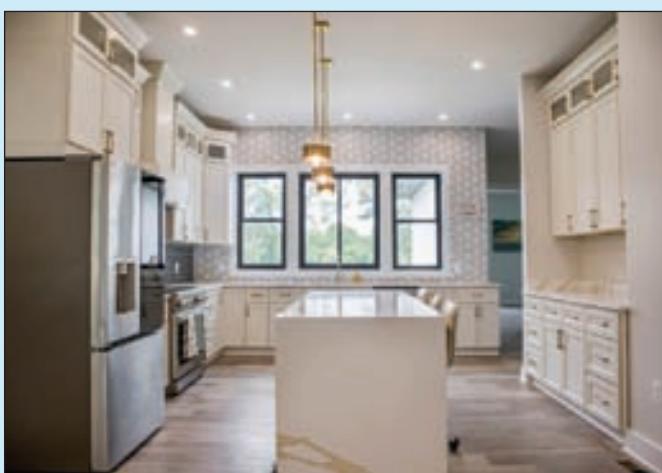
★ 마루 ★
LVP, Hardwood
스페셜 프로모션
1,000sq 이상
\$500 할인

★ 창문 ★
스페셜 프로모션
창문 20개 이상
\$500 할인

3개월
할부
무이자



마루시공
Hardwood, Carpets



주방 리모델링
Cabinet, Sink, Faucets



욕실 리모델링
Bathroom, Tile



덱 / 사이딩
Deck / Siding



창문
Windows



지붕
싱글, 플랫

강풍 / 우박 피해 지붕 보험 상담 환영

믿을 수 있는 자재 시공과 건설능력으로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기간!

Exterior 문의 : 703.628.5216 / 703.474.3112
Interior 문의 : 703.559.4213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1월

구

인

광

고

함께 성장할 회사 임원(Director)을 찾습니다.

미국 FDA에서 정식으로 판매 허가를 받은 제품과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미국 전역에 사업을 펼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회사 임원(Director)으로 참여하여 회사의 성장과 베네핏을 함께 나눌 비전과 열정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거나, 문자로 연락 주시면 편리한 시간에 미팅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을 환영합니다

- 미래를 준비하며 안정적이면서도 성장 잠재력이 큰 일을 찾는 분
- 미국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전환점을 만들고자 하는 분
- 역량에 따라 무한한 수의 창출이 가능한 기회를 원하시는 분
-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향, 성실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한 분
-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찾고 계신 분
- 나이, 성별, 이중언어 여부 무관
-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 가능자는 추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 본인의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애난데일, VA (P & A USA Inc)

mydexa21@gmail.com / 571-668-0805 (문자요망)

파리 바게뜨 베데스타 Paris Baguette Bethesda

경험있는 제빵사,
케이크 데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대우 보장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703-225-5500
hr@worldbankcard.net

성공 비지니스...
시작이 중요합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 Fairfax 인근 공원과 숲 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향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 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옵니다.”

구인

Home Improvement

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우·도어
경력자 구함
합법 신분자



703.944.8433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会社

571-239-6054

구인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마케팅 세일즈 직원 모집

- 영어/한국어 가능
- 출장 업무 필수
- 운전 경력 풍부하신 분
-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 분
-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301.468.8949

www.onnaturalusa.com

금매

Korean BBQ
& Hot Pot
케이더스버그, MD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f 규모
저렴한 렌트
매매가격 Only
\$280,000

최근에 새로 지어서
리모델링 비용절감

240-988-6868

매매

확실한 순익보장 데리

DC SW 매매가 32만불 (cash only)

- 연간 수익 15만불이상 (주매상 만불)
- 수월한 운영 (키오스크 시스템)
- 저렴한 렌트비 (\$2700/월)
- 오랜 경험의 믿을만한 직원 2명
- 주 5일 (6am ~ 3pm)
- 공실위험 없는 건물

703.300.7207 (텍스트)

관심있는 분만 연락주세요

메디케어 전문가·정선판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 & B Universal, Inc. 히팅·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 Chantilly, VA 지역
- ◎ 이중언어 필수
- ◎ 근무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 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6년 1월 15일 목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메릴랜드 봉고메리몰 시계 및 쥬얼리샵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학생 환영
301-365-7794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직원 모집
마케팅 세일즈 분야, 영어/한국어 가능
출장업무 필수, 운전 경력 풍부하신 분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분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문의: 301-468-8949

콜督办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 기사(옴니 거주 환영)
주방 보조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경
험자 가능
▶703-598-3316, 703-862-539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학벌적 근무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
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니
쉬) 가능한 유, 무경험자 구합니다.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션
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
& 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
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
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 모집
업무: 주방 보조(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 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443-828-7777

세탁/이미용/기타

95년형 벤츠 300, 18만 마일, \$3,000
703-966-9597

강아지 분양합니다. 순종 풍산개, 1월 중순
703-868-6114

2018년 포드 트렌짓 250, 인슬레이션된
쿨리 밴, 차고지 MD
201-681-4470

OK 택시 엘리컷시티, 락빌, 애난데일
장거리 업무로 어디든 가능,
병원/공항/카지노, 24시간 가능
571-332-3987

글렌버니 리커스토어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유경험자, 파티임
443-262-1813

DC - CUA 메트로 근처
American Breakfast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티임(6am - 2pm) \$18/hr + tips
703-785-8763

어큐라 MDX 2012년 134,000 마일리지
타임 벨트 & 배터리 교체, 그레이 색상,
굿 컨디션 \$6,500
703-909-9377 / 703-560-6424

최고급 등산 장비 팝니다.
아래 번호로 메세지 남기시면 바로 전화드
리겠습니다.
703-869-5919

PG 카운터 리퀴스토어 라리스틱 하실 분
2~9pm 일하실 분 구함(금, 토 포함)
301-336-2500

손사이딩 올드하우스 메캐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홈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
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에 한함
703-944-8433

토요 핸디맨 (전기, 목수, 타일, 배관, 창문,
마루, 페인트)
443-994-3415 (전화 메세지 주세요)

엘리콧시티 혜반 한국식당에서 흘 서버 하실
분 구합니다.
▶443-420-3096

영어 가능한 텔리 매니저 구합니다.
DCSW(월~금, 6am - 3pm)
703-300-7207 (문자)

파리바게뜨 베네스다에서 경험 있는 제빵사
나 케이 테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비속령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널리 흥. 나이, 학력, 경력, 성
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571-546-8683

메릴랜드 엘리컷시티에서 15분 거리
큰 싱글지하 전체 렌트, 간이 주방, 큰 방, 큰
거실, 큰 욕실, 주차 가능, 유포 \$1,200
703-231-5572

엘리컷시티 롯데 5분거리, 밝고 깨끗한 싱글
하우스 워크 아웃 지하 렌트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 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lounge.com>

방2, 욕실, 취사 가능
443-630-2322

조용/교통 편리한 위치 도서관, 한아름, 메트
로 근처 싱글 흥방하나 렌트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환경
301-655-3248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 흥 2층 방 렌트
유포, 직장인, 잠만 주무실 분 \$700
240-393-3615 (문자 요망)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 흥 방 렌트 합니다.
욕실, 주방,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3-1438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반지하 전체 렌트
방2, 부엌, 욕실, 세탁실, 출입문 별도, 롯데에
서 15분 거리
443-797-7293

실버스프링 루트 200, 95, 495 근처,
싱글 흥 방하나 렌트 합니다.
301-962-0728 / 240-997-3168

사업체 매매

DC 백악관 옆 픽업 스토어 매매
저렴한 렌트비, 주5일, 좋은 수익, 은퇴 예정
443-618-8100

1. 주 5일 Deli/Cafe 애난데일 근처
\$60,000/1,400sf/렌트 \$2,900/굿파킹
2. 주 5일 Deli/Cafe DC NW \$70,000
렌트 \$4,300/매상 증대 최적 장소
3. 대형 식당, 패어팩스 \$270,000
7,000sf/180석/연회 전문/굿파킹
4. DC NW 2층 한식당 \$230,000
리퀴리아션스/퓨전 한식 적합
5. 명품 간장 계장 2nd Location 투자자
모집
▶DJ Lee 703-303-8003

1. 치킨 프랜차이즈 95만불, 주매상 3만
2. 일식집, GMU 근처 20만불
주매상 1만5천, 넉넉한 파킹
▶703-303-8003

1. DC NW 잘꾸며진 한식/분식 식당 19만
2. DC NW 드라이크리닝 픽업, 주매상 9천,
주 5일, 대로변 위치
3. 치킨 프랜차이즈 3곳, VA, MD
4. 쿵후터, Bakery 등 리스팅
▶DJ Lee 703-303-8003

베데스타 텔리 \$170,000
너무 좋은 자리, 1200 SF, 주매상 \$10,000
렌트 \$5,791
▶703-928-5990

델리 (DC) \$150K
DC 내 위치, 장사 잘되는 곳이나 익스 희망,
안정된 수입, 투자용
▶703-625-9909

ANNANDALE, VA 공인 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있으며, 영주권 스펜서 가능
Email: wjklm0111@gmail.com

BridgeOne Insurance 보험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경험자 가능
VA & MD
▶703-598-3316 / 703-862-5395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
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
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
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 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 대우 보장
문의: 703-225-5500
이메일 지원: hr@worldbankcard.net

많은 지원 바랍니다.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애난데일 홈케어 매니저/지점장 구함
매니저 유경험자 우대, 영어/한국어 이중언
어 우대
문의: 571-389-4415

애난데일 홈케어 매니저/지점장 구함
매니저 유경험자 우대, 영어/한국어 이중언
어 우대
문의: 571-389-4415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 개인렌트 유료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5일 목요일 중앙일보

이력서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타이슨스)
경험자우대, Dentrix Plus Full/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i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RT-1 콘티코 근처 편의점에서 신원 확실한
남자 경력자 구함. 문자 연락 요망.
443-618-7141

애난데일 한식당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703-712-7417

애난데일 일명품 게장에서 함께 일하실 웨이터
리스 & 웨이터 구합니다.
703-398-2226

애난데일에 위치한 제과점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캐쉬어풀타임(유/무경험자)
제빵사풀타임(유경험자)
703-625-8525

DC-CUA 메트로근처
American Breakfast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트타임(6am-2pm) \$18/hr+tips
703-785-8763

우드브리지 콘티코 부대안에 있는 일식당에
서 함께 일하실 웨이터리스 구합니다.
신분 확실하시고 영어 가능하신분
703-640-7488/443-978-0900

영어 가능한 멀리 매니저 구합니다.
DC SW(월~금, 6am-3pm)
703-300-7207 (문자)

Hashi Sushi 일식당에서 서버, 어시스턴트
매니저 구합니다.
영어 필수, 경험자 페이 우대
703-628-9168 (문자)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셔,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우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파트타임

▶571-991-4172

이미용

매너사스 파크 바버샵에서 함께 일하실
비버구함. 일주일에 3, 4일 일하실분
703-473-9771

세탁/얼터레이션

알링턴 DC 지역 세탁소에서 직원 구함
풀/파트타임 카운터 보실분
풀/파트타임 얼터레이션 하실분
571-455-3609

알렉산드리아 테일러샵에서 바느질 하실분
모십니다.

3일 파타임 가능하신분
703-328-3064

자동차/정비/바다샵

풀스쳐치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캐닉
유 경험자 구합니다. 첫째/셋째 토요일 휴무
571-332-6110

엘리곳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캐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기타구인

맥클린 한국 학교에서 교사 모집
어린이를 사랑하시는분
571-235-8997/ 703-505-5760

가사 도우실분을 찾습니다.
음식 깔끔하게 하시는분, 세탁, 집안 정리
12:30-7:30 주 5일 주급 \$750

경험자 우대, 가족처럼 오래 일하실분
맥클린 VA
703-887-1037

손사이딩 올드하우스 메캐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홈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
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에 한함
703-944-8433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센터빌)
▶571-591-4455

싱글/타운홈 렌트

애난데일 타운홈 렌트 \$3,400
방3, 화3.5, 최신식 최고급으로 업그레이드된 집, 화려하게 잘 꾸며 놓은 부엌

과 화장실, 집 전체 나무 마루, 넓은 데, 워크 아웃 베이스먼트, 모델 하우스 보다 더 예쁜 집, 교통 편리, 즉시 입주
▶703-477-3114

1. 매너사스 타운 \$3,400
(2025년 12월 새집) 2,700 sq, 방4, 화3.5, 로프트(오피스), 2/4층 데크, 카고 2, 모던 오픈

스타일 키친, 234/66/GMU 근처, 이노베이션 팩 플랫폼 몰인근, 교통편리, 센터빌 10마일 2. 브리스토 타운 \$3,200

방4, 화3.5, 카고 2, 전부 마루, 모던 오픈스

타일 키친, Patriot High 최고 학군, 234/Sudly manor, near Costco
▶571-239-6054

1. 게이더스 버그 타운홈 \$3,300

방4, 화장실 2

2. 제섭 타운홈 \$2,800 방3, 화장실 3

3. 엘리كت시티 타운홈 \$2,750

방3, 화장실 2/2

4. 파사데나 타운홈 \$2,600

방3, 화장실 2/2

5. 콜롬비아 싱글홈(반지하) \$1,500

방2, 화장실 2

▶301-318-4242 / 443-668-0453

스프링필드 타운홈 렌트 \$3,000

방2, 화2.2, 2 Assigned 주차, 밝고 환한집, 업그레이드 많이 함, 교통편리

▶703-919-0472

1. 센터빌 타운 홈 렌트 \$3,300

방3, 화3.5, 주차 2, 즉시 입주

2. 센터빌 타운 홈 렌트 \$3,500

방4, 화3.5, 주차 2, 즉시 입주

3. 패어팩스 타운홈 렌트 \$3,600

방3, 화3.5, 주차 2, 2월초 입주

▶703-863-0321

매너사스 기차역 가까운 타운홈 \$2,900

방3, 화2.5, 카고 2, 앤드 유닛

▶703-489-6926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홈 전체 렌트

방4 화3.5 \$3,200 or 일부 방3 화2.5

\$2,200

470-485-1875

센터빌 H마트에서 10분거리 타운홈

\$2,350 (유틸리티 별도) 방3, 화장실 1.5, 뉴리모델링, 개 고양이 가능, 단기 렌트 가능

571-345-6667

콘도 렌트

비엔나 메트로 근처 콘도 렌트 \$2,700

방2, 화2, 카고 1, 수영장, 휴트니스 센터, 물값 포함

571-271-2457

센터빌 롯데 근처 콘도 전체 렌트합니다.

방2, 화2.5, 교통 편리, 즉시 입주 가능

\$2,180

301-466-1646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1, 주차 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현돈 새 콘도 렌트 \$3,000

방2, 화2.5, 카고 1, 이노베이션 메트로 역도

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자이언트, 1,600sf, RT267/28, 최

고 교통요지

▶571-239-6054

방 렌트

로튼(스프링필드 근처) 주택가 렌트

넓은 1층 같은 워크 아웃 전체

방 3, 인터넷, 냉장고, 세탁기, 주방, 유트리

티 포함, 출입문 별도

571-488-5860

Fairfax/Burke 지역

노바, 조지메이슨, 버크H 마트 10분 거리

인터넷, 취사, 유포, 여자분 환영 \$650

571-214-0188 (문자요망)

센터빌 롯데 근처 타운하우스

2층 유클리드 렌트합니다.

571-970-8048

애난데일 시루암 방하나 렌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703-973-8123

애난데일 예촌암 타운하우스 마스터 배드룸

또는 작은 방렌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703-622-2033

센터빌 H마트 5-10분 거리, 싱글하우스 밝고 조용한 유풍방, 마루, 유포, 교통편리, 여

자분 환영

571-345-8879 (문자요망)

페어팩스 조지메이슨 & 노바 대학 근처 방렌트, 금연자, 즉시 입주 가능

703-472-2295

게인스빌 타운홈 베이스먼트 워크 아웃 방하나 렌트합니다. 거실/화장실/세탁실/침만

주무실분

703-732-1246

센트리 롯데 근처 싱글하우스 워킹방 렌트

남자분 환영

703-344-6273

애난데일 워룸 스타일 방 렌트합니다. 방안

에 사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책상 다 갖추

어서 있고 깨끗합니다.

571-232-6052

애난데일 H마트 옆 밝고 조용한 콘도 방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571-326-5605 / 301-266-1858

애난데일 큰 싱글홈 밝고 큰 화장실 렌트합니다. 교통 편리 롯데 1분한 강식당 1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6년 1월 15일 목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 517-239-6054

1. 센터빌타운홈 \$600,000
방3, 화2.5, 카고 1
2. 센터빌타운하우스 \$700,000
방3, 화2.5, 카고 2
3. 비엔나콘도 \$325,000 방1, 화1
▶ 703-919-0472

챈틸리금매타운하우스 \$300,000
방2, 화1, 아담한 뒷마당
▶ 703-231-5572

알디싱글하우스 \$869,000
방4, 화2.5, 카고 2, 전체 마루, 굿컨디션,
New Trex deck, New paint, New roof, John
Champe High School
▶ 517-239-6054

엘리컷시티싱글홈 \$749,000
방4, 화3.5, 카고 2
▶ 301-318-4242/443-668-0453

1. Elkridge타운홈 \$625,000
방3, 화장실 2+2, 카고 2, 아주 넓고 이쁜집,
마루 바닥, 1층에 안방
2. 실버스프링타운홈 \$750,000
방3, 화장실 3+1, 카고 2
13년된 벽돌로 지어진 고급타운홈,
3. 엘리컷시티싱글홈 \$820,000
방5, 화장실 3+1, 카고 2, 밝고 이쁘게 잘꾸며
진집, 넓은 뒷뜰
▶ 410-417-7080

1. 패어팩스싱글홈 \$999,000
방5, 화장실 4+1, 카고 2, 넓은 구조와 잘 가
꾸어진 집, 벽돌, 마루 바닥
2. 패어팩스싱글홈 \$1,050,000
방4, 화장실 3+1, 카고 2, 우손 학군,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
3. 패어팩스타운홈 \$850,000
방4, 화장실 3+1, 카고 2, 엔드유닛, 아주 밝고
이쁘게 꾸며진 집
4. 비엔나싱글홈 \$1,875,000
방6, 화장실 6, 카고 2, 새집같이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 집, 편리한 교통
▶ 703-899-8999

1. 던로링메트로 앞 콘도 \$460,000
방1, 화1, 1/2층 오픈 LOFT 835 sqft,
전부 리모델링, 나무 마루
2. 맥클린 콘도 \$389,000
방2, 화2, 1,050 sqft Mclean High, RT495,
66/26/7 Metro, Tysons Galleria 옆
▶ 517-239-6054

도미니언 벨리컨트리클럽, 헤이마켓 싱글
\$1,699,000
1에이커 숲속, 6,700 sqft, 방5, 화5.5,
카고 3, 선룸,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욕
실, 드레스룸, 인로우스위트, 미디어룸, 게임
룸, 바 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야외 리
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 517-239-6054

사업체 매매

DC 백악관옆 퍽업 스토어 매매
저렴한 렌트비, 주5일, 좋은 수익, 은퇴예정
443-618-8100

1. 주5일 Deli/Cafe 애난데일 근처 \$60,000
1,400sf/렌트 \$2,900/굿파킹
2. 주5일 Deli/Cafe DC NW \$70,000
렌트 \$4,300/매장 중대 최적 장소
3. 대형식당, 패어팩스 \$270,000
7,000sf/180석/연회전용/굿파킹
4. DC NW 2층 한식당 \$230,000
리워라이센스/퓨전 한식 적합
5. 명품 간장 계장 2nd Location 투자자 모집
▶ DJ Lee 703-303-8003

애난데일 버지니아 자동차 메캐닉샵
차고 2개, 서비스비이 높습니다. 주차공간 충
분, 즉시 운영 가능, 퍼밋 완료, 1백10만불
▶ 703-928-5990

1. 치킨프랜차이즈 95만불, 주매상 3만
2. 일식집, GMU 근처 20만불, 주매상 1만5천
▶ 703-303-8003

1. DC NW 잘 꾸며진 한식/분식 식당 19만
2. DC NW 드라이크리닝 퍽업, 주매상 9천,
주 5일, 대로변 위치
3. 치킨 프랜차이즈 3곳, VA, MD
4. 쿵후티, Bakery 등 리스팅
5. 나이트 클럽, 주매상 4만, 패어팩스 카운터,
최고로 케이션 5,000sf
▶ DJ Lee 703-303-8003

베데스타 샌드위치 샵 \$170,000
너무 좋은 자리, 1200 SF, 주매상 \$10,000
렌트 \$5,791
▶ 703-928-5990

델리샵 (DC) \$150K
DC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 703-625-9909

중고 매매 / 기타

95년형 벤츠 300, 18만마일, \$3,000
703-966-9597

파이노 레슨 합니다.
초중고 및 입시반, 성인 취미반
Zoom & In-person
703-772-2987 (문자)

강아지분양합니다. 순종 풍산개, 1월중순
703-868-6114

2018년 포드 트렌짓 250, 인솔레이션된
쿨러 밴, 차고지 MD
201-681-4470

OK 택시 엘리컷시티, 락빌, 애난데일
장거리 염가로 어디든 가능,
병원/공항/카지노, 24시간 가능
571-332-3987

어큐라 MDX 2012년 134,000 마일리지
타임 벨트 & 배터리 교체, 그레이 색상,
굿컨디션 \$6,500
703-909-9377 / 703-560-6424

최고급 등산 장비 팝니다.
아래 번호로 메시지 남기시면 바로 전화 드리
겠습니다.
703-869-5919

비속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널심홈, 나이, 학력, 경력, 성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 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 571-546-8683

상태 좋은 남/여 중고 골프 세트 싼 가격에 팝
니다.
703-966-9072 (Mr. Kim)

색소폰, 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트럼본, 플루
트 - 악기별 개인 맞춤 렌스
757-338-8496

건축/페인트/마루

손 사이딩 올드하우스 메캐닉 헬프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구인-리모델링 건축 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
술자, 헬프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애디션, 데크, 팬스, 지붕
제니얼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JGL 건설 회사
하청없이 25년 이상 숙련된 본사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 571-213-8678

JJL CONTRATOR INC.
지붕 고민/돈 걱정 그만하세요
▶ 703-835-0945

형제 건축 & 자동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 703-928-6255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 일체
▶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 (In, Out), 데크, 메인터너스 와 클리
닝, 샌딩, 파워 워시, 핸디맨 서비스
▶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 건축
빌딩 시설 관리 전문 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
체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데크, 그외 모든 공사, 주
정부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 240-687-5155

보험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내년도 메디케
어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703-961-8811

생명보험, 은퇴연금, 비즈니스 세금 절감 플랜
까지 전문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안전한 미
래를 준비하세요.
703-939-2737

지금 연금, 정말 만족하십니까?
한 번의 점검이, 내일의 차이를 만듭니다.
703-577-8181

정문기 메디케어 보험
65세 되는 1960년생 신규 가입 신청 도와
드립니다.
▶ 703-598-3316

옴니하우스 사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 보험
▶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월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 703-862-5395

조은혜 종합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 / 자동차 / 주
택 / 사업체 보험
▶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로리문 및 춤형 연금 & 재정 관리
▶ 703-895-7648

제인 최용자 25년 경력 매입 / 재용자 / 특수
▶ 703-244-3453

マイ클 장용자 주택 / 상업용자 / 재정 상담
▶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 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 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 410-370-8057

라돈 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 소지자
▶ 202-774-6554

냉동 / 히팅

KWK 냉난방 BALTIMORE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 프리저 수리 전
문, 믿고 맡겨주세요.
443-540-6922 / 410-292-0001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 / 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팅 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 산업용
▶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 냉난방 TEACHER
▶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
웃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 연중 무휴 무료점검
▶ 443-850-3703 / 410-979-4242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 퀄러, 워터 히터
▶ 443-280-1873

정스냉동 (가정용 / 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 퀄러, 아이스 머신, 덕트 설치 & 크리너
▶ 301-572-2786 / 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 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 매입
▶ 703-988-0033 / 301-792-5615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컬러티, 무료견적, 최상
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 지사
오픈, AS 전단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
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 703-600-9031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 가격 보장, 카펫 / 하드
우드 / 타일, 주거용 / 상업용 한 번 시공은 끝
까지 책임집니다.
▶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스
팀 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브러쉬,
파워 플러시온, 응급 수해 복구 및 타일 플로워
워스
▶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카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
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 교체
▶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을, 상하수도 수리교
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 교체,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 밖 물새는 것
▶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1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 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703-591-0009 / 703-537-9899



냉 · 난방

히팅 ·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 · MD · 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LENNOX Carrier TRANE

Carrier, Lennox
전문설비

AWARDED

Porch Home Advisor BBB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데크,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데크, 캐비넷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 헬스케어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법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태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법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기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법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KOREA(BUSAN) USA(LOS ANGELES) USA(SAN FRANCISCO)
02-2093-2093 051-469-4191 310-767-5099 510-9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태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귀국 이사 전문

신용

저렴

▶자체 창고 보관

▶타주, 시내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귀국이삿짐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타주이사

100% 자체보험으로

해외이사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시내이사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위성판권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wp., #310, Annandale, VA 22003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 톡

소 톡

JD Star Pest Control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센스 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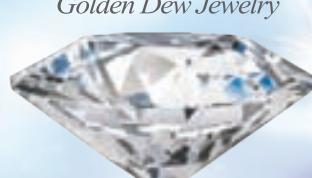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듀 보석

건 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용 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응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테아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703.909.0988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주거용
상업용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설 분, 경매)

Hyundai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핫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넥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703.380.2282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① 위성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JGL Construction Inc.
jglconstruction.com

JGL 건설회사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클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 • 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야기 둘째자,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301.792.5615 H-Mart 내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 15년 이상의 경험 • 보험가입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703.994.2943
Ray Kim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룰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blinds.com bbgb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 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형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703-928-6255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팎 물새는 것

24Hr
703.499.5984

홈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 ◆ 수도꼭지 교체
- ◆ 씽크 / 디스포제
- ◆ 워터히터 / 물새는 것
-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 셀프펌프 교체

571.594.4080
VA A 라이센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컨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미늄)
- 제작 및 설치
(기친후드, 닥트)
- 보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 가능

DC, MD, WV 라이센스 소지
301-222-3277

블라인드 / 틴트

“100% 한국산 공장직영”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VA, MD, DC, PA, NC 전지역을 총괄하는 지사 오픈!!

• 한국산 지브라쉐이드, 전동블라인드, 룰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항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703.600.9031

“모바일 앱으로 손님 폰에 세일 광고 및 마케팅 문구 전송, 무제한, 무료”



- 멀티매장 + 창고관리
- 간편한 재고관리
- 고객 포인트 적립 프로그램
- 모바일 앱을 통해 손님폰으로 세일 전송
- 기존 POS 시스템에서 재고 데이터 이전 가능
- 인터넷이 끊겨도 작동하는 오프라인 모드
- 100,000개 이상의 뷰티 아이템 데이터 내장
- 매장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가능

“모바일 앱 세일 광고 품목,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구매, 결제 가능”

“세일즈 에이전트 모집중!!
문의: hr@worldbankcard.net”



WBS

상담문의 환영 703-225-5500
WWW.WORLDBANKCARD.COM
WWW.IMIDUS.APP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LIBERTY UNIVERSITY & MIT

(Meridian Institute of Technology University)

세계 최초 카드 프로세싱 · Fintech · IT 창업 전문대학

① 카드 프로세싱 전문가 과정 (Fintech & IT Training)

- 전문 과정 수강료: \$5,000
- 카드 단말기-POS-온라인 결제 교육
- 교육 후 공인 카드 프로세싱 전문가 자격 취득
- 실습 과정 + 현장 배치 지원
- 안정적 수입

② 소액 창업자 & 투자자반

- 카드 프로세싱 회사 운영 기회 제공
- 창업 투자자금 약 \$50,000부터 가능
- 본사 지원으로 독립 지점 개설 가능
- 세계적인 결제 시스템 기업 제품 판매 및 서비스 기회
- 결제 시스템 + 마케팅·운영·고객 관리 교육 제공

③ 비자 연계 창업 프로그램 (E-2, EB-5 Visa)

- E-2 비자: \$150,000~\$300,000 투자 → 투자비자 교육 프로그램 + 독립 지점 창업 지원
- EB-5 비자: Million Dollar 투자 프로그램 (영주권 연계) → EB-5 프로그램 교육 과정 포함
- 글로벌 투자 이민 간설팅 회사와 투자 이민 전문 변호사 협력 지원 가능
- 합법적 미국 체류 +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 기회 제공

④ 교육 + 창업 + 투자이민 원스톱 솔루션 제공

Liberty Bankcard(MPS) & Liberty University 전문 지원

세계 1위 회사 (Worldpay.com) 서비스 제공하면서 안정된 고소득 창출하세요.

문의 (424)332-3779 미전지역 가능

info@meridianwish.com www.meridianwish.com

입학 설명회 및 ZOOM 미팅 예약번호: (424) 332-3779

9465 Wilshire Blvd., Suite 300 Beverly Hills, CA 90212

기타 지역

구인

중식쉐프 & 스시맨

알리스카, 취업결격시유없는분
숙식제공(888)337-0982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민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학장 : 사라 류 박사

https://en.wikipedia.org/wiki/Dr._Sarah_Sun_Liew

30년 프로세싱 경력

경영학 & 법학박사(J.S.D.)

(전자상거래 & 금융),

영업학, 교육학, 철교학 박사

하버드 경영·교육·정치 대학원

Alumni MIT, Wharton,

Chicago Booth

경영대학원 수학

하버드, 아브라함(J.D.) 수학

퍼시픽(J.S.D.) 법대원 졸업

부학장 : 아브라함 이

(경영학 학사, 석사)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경우 한분만도 가능)
-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 집구매는 일시불로 자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Hello Town

미국 생활에 대한

고질라리 리얼정보와

마음이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까지!

All about US Life!

구인

RENT

부동산

미국 라이프의 모든 것

자동차

전문업체

문의 213.368.2525

9월
햇산삼
세일

매장과 온라인 상점

천중산상

9월
햇산삼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홀세일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Kim's Acupuncture Clini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213)407-4524

20년된 한식점 일식당 급매

소자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현대자동차 등 협력회사 많은 지역으로 트래픽이 많은 지역입니다.

몽골베리 알라바마지역 가 \$10만 (Nego 가능)

(334) 669-4474

치질·출혈 수술 안하고 OK

항문풀림·변비·요실금 출출
직장과 대장암 발병 예방효과
새기 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간편합니다.

똥배·뱃살 오묘없이 빠져요

기적의 티타늄벨트로

허리통증·냉증도 탈출

실제사례 www.miracletouchusa.com 검색

미라클 터치 (213)675-6877



⑤ 비자 연계 창업 프로그램 (E-2, EB-5 Visa)

- E-2 비자: \$150,000~\$300,000 투자 → 투자비자 교육 프로그램 + 독립 지점 창업 지원
- EB-5 비자: Million Dollar 투자 프로그램 (영주권 연계) → EB-5 프로그램 교육 과정 포함
- 글로벌 투자 이민 간설팅 회사와 투자 이민 전문 변호사 협력 지원 가능
- 합법적 미국 체류 +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 기회 제공

⑥ 교육 + 창업 + 투자이민 원스톱 솔루션 제공

Liberty Bankcard(MPS) & Liberty University 전문 지원

세계 1위 회사 (Worldpay.com) 서비스 제공하면서 안정된 고소득 창출하세요.

문의 (424)332-3779 미전지역 가능

info@meridianwish.com www.meridianwish.com

입학 설명회 및 ZOOM 미팅 예약번호: (424) 332-3779

9465 Wilshire Blvd., Suite 300 Beverly Hills, CA 90212

지긋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멜휘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별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치료에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십시오!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

어르신을 위한 연말연시 최적의 선물!!

건대추 판매 11월부터

좋은 건대추를 농장에서 직주문 하세요!

전화주문 714.833.4988 (Mrs. Han You)

건대추 미주 전지역 운송비 포함 가격

\$180
\$1
SOLD
•1BOX

\$150
\$12/lb 대추
•10LBS•1BOX

\$100
\$7/lb 대추
•10LBS•1BOX

* \$12/lb 대추는 \$15/lb 대추보다 품질은 같으나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Pay by Zelle or check. No credit card. 하와이 알라스카 추가요금

목은해 대추 : NO
쪄서 말린 대추: NO
감미료 첨가 : NO
화학비료 사용 : NO
농약 사용 : NO
중국산 대추 : NO

숙성된 토비를
듬뿍 사용하여 재배한
양질의 대추를 100%
천연광으로 정성껏
건조시켜 맛과 영양 보존
상태가 최고인 고급 건강
햇 대추입니다.

농장문시 전화예약 필수

신선농원 714.833.4988 (Mrs. Han You) 2060 Darby St, San Bernardino, CA 92407

독점 Burke

싱글홈

방4, 화3 1/2, 2 Car Garage,
집 전체 리모델링, 새 지붕, 새 HVAC 시스템,
새 창문, 새 DECK, 새로 단장한 고급 부엌,
모든 화장실 업데이트

\$975,000



Contract

독점

Centreville 타운홈

방3, 화2 1/2, 새로 단장한 고급 부엌,
Stainless Steel Appliances,
새 페인트, 집 전체 리모델링,
교통 편리

\$510,000



독점

Dumfries 타운홈

2006년 새단지, 2 Car Garage, 방3, 화3 1/2,
Bay Window 2개, 편리한 탁트인 구조,
방고 혼한 집, 새 페인트, 잘 관리된 집,
업데이트한 주방용구

\$469,900



Sold



독점

Springfield 타운홈

방3, 화3 1/2, 1 Car Garage
집 전체 업그레이드, 엔드 유닛,
새 페인트, 새 Deck,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최근 에어컨, 히팅, 지붕, Appliances 모두 교체

\$699,900



Contract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 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